

# [ebs부교재] 주몽신화

동명왕 신화(東明王神話) (주몽 신화)



고구려(高句麗)는 곧 졸본 부여(卒本扶餘)다. 혹 지금의 화주(和州)나 성주(成州)나 하는 것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졸본주는 요동(遼東)의 경계에 있다. 국사 고려본기(本記)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시조 동명왕(東明王)은 성(姓)은 고씨(高氏)요, 이름은 주몽(朱蒙)이다. 이 보다 앞서, 북부여 왕 해부루(解夫婁)가 동부여로 피해 가고, 부루가 죽자 금와(金蛙)가 왕위를 이었다.

그 때 한 여자를 태백산(太白山) 남쪽 우발수(優渤水)에서 만나 물으니,  
"나는 하백(河伯)의 딸로 이름은 유화(柳花)입니다. 동생들과 놀러 나왔다가 하느님의 아들인 해모수(解慕漱)를 만나 웅신산(熊神山) 밑 압록(鴨祿)가에서 같이 살았는데, 그는 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증매 없이 남을 따라간 것을 책망하여 여기에 귀양 보낸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금와(金蛙)가 이상히 여겨 유화를 집에 두었더니, 햇빛이 비쳐 몸을 피해도 쫓아 가며 비추었다. 이로 해서 잉태하여 알 하나를 낳았는데, 크기가 다섯 되 들이나 되었다. 왕이 버려서 개, 돼지에게 주어도 먹지 않으며, 길에 버리면 소나 말이 피해 가고, 들에 버리면 새와 짐승이 덮어 주었다. 왕이 깨뜨리려 해도 깨어지지 않으니 도로 어미에게 주었다. 어미가 알을 싸서 따뜻한 곳에 두니, 한 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왔다. 기골이 영특하고 기이하여 7세에 벌써 보통 사람과 다르게 뛰어났다.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면 백발백중(百發百中)하였다. 숙담에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주몽이라 하였다.

금와에게 아들 일곱이 있었는데, 주몽과 같이 놀면 그 재주가 늘 따라가지 못하였다. 맏아들 대소(帶素)가 왕에 말하되,

"주몽은 사람의 소생이 아니니, 만약 일찍 없애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사옵니다."

라고 했다. 그러나 왕은 듣지 않고 말을 기르도록 하였다. 주몽은 좋은 말을 알아 보아 조금씩 먹여 여위게 하고 나쁜 말은 잘 먹여 살찌게 했다. 왕은 살찐 것을 타고 여윈 것은 주몽에게 주었다. 주몽의 어머니가 왕의 다른 아들들이 여러 장수와 함께 주몽을 장차 해치려 함을 알고,

"이 나라 사람들이 너를 해치려 하니, 너의 재주와 지략으로 어디로 간들 안 되겠느냐? 속히 일을 꾸며라."

라고 하였다.

이에 주몽이 오이(烏伊)등 세 사람의 벗과 엄수(淹水)에 이르러 고하되,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요, 하백(河伯)의 손자다. 오늘 도망하고 있는데 뒤쫓는 자가 따라오니 어찌하리오?"

하니, 고기와 자라들이 다리를 놓아 주었다. 주몽이 건너자 다리는 사라지고 쫓아오는 군사들은 건너지 못하였다.

졸본주에 이르러 도읍하였으나 미처 궁실을 짓지 못하여 비류수(沸流水) 가에 초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막을 짓고 국호(國號)를 고구려(高句麗)라 하였다. 고씨(高氏)로 성을 삼았으니, 그때 나이 12세였다.

삼국유사(三國遺事)

## ■요점 정리

- 지은이 : 일연
- 갈래 : 건국 신화(개국 신화), 신화(서사)
- 성격 : 신화적, 영웅적
- 내용 : 동명왕의 신이한 탄생 및 고구려 건국의 경위
- 제재 : 동명왕의 영웅적 일대기와 고구려 건국 경위
- 구성 : 4단 구성, 연대기적 구성, 설화적 구성, 순차적 구성, 일대기적 구성
  - 기(起) : 해모수와 유화의 만남
  - 승(承) : 주몽의 탄생과 성장
  - 전(轉) : 주몽의 비범성과 영웅성
  - 결(結) : 고구려 건국
- 문체 : 역어체
- 구성 : 설화적 구성
- 주제 : 주몽의 탄생과 고구려 건국 과정
- 특징 : '천제 - 해모수 - 주몽'이라는 삼대기의 구조와 천손 하강형, 천부지모형의 화소와 난생 외에 여러 신화소를 결합하고 있다.
- 의의 :
  - ① 우리 나라 문헌 설화 중에서 어느 신화도 따를 수 없는 높은 문학적성을 지니고 있다.
  - ② 여러 가지 신화소(神話素)가 결합되어 있으며, 난생 설화 중 유일한 인생란(人生卵)신화이다.
  - ③ 영웅의 일대기는 후대 서사 문학에 영향을 주었다.
- 줄거리 : 주몽은 하늘의 신(神)인 해모수를 아버지로, 물의 신인 하백의 딸을 어머니로 하여 알로 태어난다. 어머니를 돌보던 부여 왕조의 금와왕은 상스럽지 않다 하여 알을 없앨 수 없게 되자 도로 알을 돌려 준다. 얼마 후, 알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는 매우 출중하고, 특히 활을 잘 쏘아, '주몽'이라 불리게 되었다. 금와왕의 일곱 아들이 그의 재주를 시기 하여 죽이려 하자, 이를 안 주몽의 어머니는 계락을 써 주몽이 기르던 말 중 가장 좋은 말을 타고 도망가게 한다. 염수에 이르러 그들의 추격이 급박해지자 주몽은 하늘을 향해 자신이 하늘과 강의 신(神)의 자손임을 말하며 도움을 청한다. 이에 자라와 고기가 무사히 달아나도록 돕는다. 드디어 주몽은 남쪽 졸본에 이르러 고구려를 세우게 되고 인접 비류국의 송양왕과 주종 관계를 두고 다투는데 활쏘기, 계락, 주술로 그를 굴복시켜 세력을 떨친다.
- 인물 :

**주몽** :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비정상적으로 출생해서는 범인과는 다른 탁월한 능력을 타고나, 어려서 버림받아 죽을 고비에 이르렀다가 구출, 양육자를 만나 죽을 고비에서 벗어나고, 자라서 다시 위기에 부딪혔다가 위기를 투쟁으로 극복하고 승리자가 되었다.

**해모수** : 홀승골승에 도움을 정한 뒤 천제의 아들이라 자칭, 해루부를 가섭원으로 쫓고 왕이 되어 국호를 북부여라고 하였다. 하백의 딸 유화와 정을 통해 주몽을 낳았다. 해(解)는 태양을 뜻하며 태양숭배 종족의 유풍에서 유래되었다.

**유화** : 수신 하백의 딸로서 아루들과 놀고 있었는데 해모수의 꾀에 빠져 정을 통해 하백에게 버림받게 되고 금와왕을 만났으나 금와왕이 유화를 이상이 여겨 어두운 방 안에 가두니 햇빛이 비춰 잉태하게 되니 주몽이 태어났다.

**하백** : 전설상의 인물로, 본래 중국 수신의 이름이다. 여기서는 유화의 아버지로 물의 신이다. 농경사회가 발전하면서 수량에 대한 인간의 바램이 있어 하백을 숭배함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출전 : 삼국유사(三國遺事)권1

## ■내용 연구

- 해부루 : 북부여를 세운 해모수의 아들.
- 금와(金蛙) : 해부루의 아들.
- 태백산 : 여기서는 백두산(白頭山)을 이름
- 하백(河伯) : 황(黃河)의 신(神), 곧 물을 맡은 신.
- 해모수(解慕數) : 북부여를 세운 사람.
- 웅신산(熊山) : 일설에 '고마뢰', '곰 개마산(介馬山). 백두산이 일명 개마산이므로 백두산의 별칭으로 보기도 함.
- 모략(謨諾) : 지모(智謀)와 방략(方略).
- 엄수(淹水) : <동명왕편>에는 엄체수(淹滯水)로, 이규보의 주석에서는 일명 '개사수(蓋斯水)'이며, 지금의 압록강 동북쪽에 있다고 함.
- 졸본 주 : 현토군(玄 郡). 한사군(漢四郡)의 하나.
- "나는 하백(河伯)의~않는다." : 해모수는 하느님의 아들이며 유화는 물 속을 다스리는 하백의 딸이다. 따라서, 해모수와 유화의 결합은 천신(天神)과 수신(水神)의 결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명왕편>에서는 남자인 천신이 여자인 수신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 금와가 이상히~낳았는데, : 햇빛이 유화의 몸을 쬐아가며 비춘 것은 하늘, 즉 해모수와의 인연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화가 낳은 특이한 알은 신성함을 기반으로 한 세계의 도래를 예고한다. 대부분 난생설화(卵生說話)가 태양 숭배 사상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해 주는 예이다.
- 주몽의 어미가~함을 알고, : 유화가 비범한 인물임을 알려 주는 대목으로, 전통적인 서사 유형인 '영웅의 일생'에서 시련에 해당하는 일이 벌어질 것을 예견하는 부분이다. 뒤에 나오는 고기와 자라가 만든 다리 역시 수신(水神)의 딸인 유화의 능력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 졸본주에 이르러 ~ 고구려라 하였다 : '삼국사기'의 원주에 소개된 일설에 의하면, 주몽이 졸본 부여에 이르렀을 때, 그 왕은 주몽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딸을 주어 사위로 삼았으며, 왕이 죽자 주몽이 왕위를 이었다고 한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의 기록이 모두 이를 취하지 않은 것을 보면, 주몽이 신천지를 찾아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는 것이 전통적인 신화 전승이라 하겠다.
- 그 때 나이 12세였다. : <삼국사기>에는 22세로 되어 있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고주몽이라는 영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고구려를 건국하게 되었는가를 다룬 건국 신화로, 이 글은 주인공이 알에서 태어나는 '난생 신화(卵生神話)'에 해당되며, 이른바 '어별성교(魚鱉成橋)'의 유명한 모티프도 포함되어 있으며, '동명왕 신화'에는 천손강림(天孫降臨), 난생(卵生), 동물 양육, 기아(棄兒:아이를 버림), 주력(呪力)등 고대 서사 문학에 나타나는 여러 요소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이 신화가 단일한 화소(話素)였다기보다 여러 화소가 모여 완성된 하나의 신화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곧, 금와(金蛙)전설, 해모수(解慕) 신화, 난생 신화 등이 적절히 배합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고구려의 세력 범위가 광활하였다는 것에도 연관지을 수 있다.

이 신화에서는 유화는 수신(水神)인 하백의 딸이고, 해모수는 천신(天神)의 천제(天帝)의 아들이다. 따라서, 동명왕의 부계는 '천제-해모수-동명왕'이며, 모계는 '하백-유화-동명왕'으로 '단군 신화'와 비교할 때 모계가 지상(地上)의 웅녀(熊女)에서 하백의 딸로 바뀌었다는 차이가 있으며, 내용상 서사적 폭이 광대하고 갈등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러한 신화 속에는 고대인들의 세계관, 자연관, 우주관 등이 담겨져 있으며, 이를 통해 현대인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인류의 보편적이고 원초적인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주제에 있어서는 인간 세계에 대한 신들의 관심, 그로부터 나타나는 현세주의(現世主義)적 세계관 등이 두드러진다.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이해와 감상1**

신화는 구비 문학 가운데 전설, 민담과 함께 서사 문학에 속하며, 전승자들이 신성시하는 이야기로서, 국가적 차원의 제의 형식에 따른 서사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신화 속에는 고대인들의 세계관, 자연관, 우주관 등이 담겨져 있으며, 이를 통해 현대인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인류의 보편적이고 원초적인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주제에 있어서는 인간 세계에 대한 신들의 관심, 그로부터 나타나는 현세주의(現世主義)적 세계관 등이 두드러진다. 이 작품은 고주몽이라는 영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고구려를 건국하게 되었는가를 다룬 건국 신화이다. 그러기에 영웅의 일대기가 서술의 초점이 된다. 또한, 이 글은 주인공이 알에서 태어나는 '난생 신화(卵生神話)'에 해당되며, 이른바 '어벌성교(魚鼈成橋)'의 유명한 모티프도 포함되어 있다. 내용상 서사적 폭이 광대하고 갈등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동명왕 신화에는 천손강림(天孫降臨), 난생(卵生), 동물 양육, 기아(棄兒-아이를 버림), 주력(呪力) 등 고대 서사문학에 나타나는 여러 요소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이 신화가 단일한 화소(話素)였다기보다 여러 화소가 모여 완성된 하나의 신화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곧, 금와(金蛙) 전설, 해모수 신화, 난생 신화 등이 적절하게 배합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고구려의 세력 범위가 광활하였다는 것과도 연관 지을 수 있다. 이 신화에서 유화는 수신(水神)인 하백의 딸이고, 해모수는 천신(天神)인 천제(天帝)의 아들이다. 따라서 동명왕의 부계는 '천제-해모수-동명왕'이며, 모계는 '하백-유화-동명왕'으로 '단군 신화'와 비교할 때 모계가 지상의 웅녀에서 하백의 딸로 바뀌었다는 차이가 있다.

**■ 신화 자료**

● “동명왕 신화”의 영웅 서사적 성격

건국 시조 신화는 서사 무가(巫歌)로 전승되는 무조 신화와 더불어 영웅 일대기의 서사 구조를 지닌다. 이 서사 구조는 대체로 ‘고귀한 혈통을 가짐→비정상적인 출생→기아(棄兒)→천부적인 탁월한 능력→시련→시련의 극복과 위대한 승리’ 등의 형식을 따른다. 주몽 역시 그러한 인물이며 이러한 서사 구조는 현세적 성취를 강조하는 낙관주의적 세계관과 관련이 있다. 한편 이 신화에 드러나는 해모수와 유화와 결합은 천신과 수신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구조	주몽
고귀한 혈통	천제자 해모수와 하백녀 유화의 아들이다.
잉태 및 출생의 비정상성	해모수가 유화를 강탈해서 임신하게 했다. 유화가 햇빛을 품고 임신, 왼쪽 겨드랑이로 알을 낳았다.
탁월한 능력	모습이 빼어나고, 목소리가 웅대하며, 몇 달 지나자 말을하고, 활을 쏘면 빛나가지 않았다.
어려서 기아가 되어 죽을 고비를 만남	태어나기 전에 해모수가 유화를 버렸다. 난생이 상스럽지 못하다고 금와가 내다버렸다.
구출, 양육자를 만나 죽을 고비를 벗어남	금와가 유화를 구출했다. 여러 말이 밟지 않고, 수많은 짐승이 보호해서 살아났다.
자라서 다시 위기	금와와 그 아들들이 주몽을 천대하고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으리라고 했다. 강에 이르러 배가 없어 길이 막혔다.
위기를 투쟁적으로 극복하고 승리자가 됨	금와의 나라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했다. 하늘에 호소하고 활로 물을 치니 고기와 자라의 무리가 다리를 놓아 강을 건너 고구려를 건국했다.

● 해모수와 유화의 만남의 의미

천제의 아들 해모수와 물을 다스리는 하백의 딸 유화와의 결합은 결국 천신과 수신의 결합으로서 비정상적이며, 기본 질서에 대한 반항이 내재된 새로운 세계의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실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또 유화가 임신한 뒤 버림받았다가 구출되는 일련의 고난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모체가 죽음을 체험하는 과정의 상징적 표현일 수도 있다.

#### ● 주몽의 탄생과 신화성

주몽의 탄생 설화에서 햇빛이 유화의 몸을 따라가며 비춘 것은 하늘과의 연관이 지속되었음을 의미하며, 그 결과 알을 낳는데 알은 '세계'를 상징한다. 세계는 깨뜨려져서 하나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데, 그 창조자가 바로 동명왕인 것이다. 알을 새나 짐승이 보호하는 것은 신성한 존재임을, 활과 화살은 바로 제왕의 상징이 된다. 화살은 햇살과 같은 의미로 활을 잘 쏜다는 것은 해를 통어하는 존재, 즉 왕을 의미한다.

#### ● '단군 신화·박혁거세 신화·주몽 신화·수로왕 신화'의 공통점

① 하늘을 중시하는 관념 : 國祖의 부계 혈통을 천신으로 설정. 이는 우리 민족이 하늘을 생명과 권위의 원천으로 보았음을 의미한다.

② 인간 중심적인 사고 : 국조인 단군이나 주몽, 혁거세, 수로왕 등은 모두 인간으로 태어나며, 하늘이 아니라 인간 세상을 위하여 존재한다. 현세적·낙관주의: 전세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내세 또한 관심 밖이다. 단지 현세의 삶에 집중되며 주인공의 삶은 대개 영광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주인공이 비장하게 패배한다는 전개는 나타나지 않는다.

#### ● 다른 작품과의 관련성

이 신화는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서사 무가(敍事巫歌)인 '당금애기'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 즉 유화가 해모수를 만나 주몽을 잉태한 과정과 그 다음의 고난을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왕충(王充)의 '논형(論衡)'에 전하는 북이(北夷) 탁리국 출신의 동명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

한편 서정주는 이 신화를 소재로 '북부여 풍류남아 해모수 가로되', '왕 금와의 사주팔자', '고구려 시조 동명성왕 주몽의 사주팔자'라는 시를 발표하였다.

#### ● 소재의 상징성

이 신화에 등장하는 소재 중에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것은 말[馬]이다. 일반적으로 말은 제왕 출현의 징표로서 태양과 관련되어 있다. 서양에서는 말이 태양을 이끈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특히 흰말은 순결과 광명을 나타냄으로써 신성함, 위대함, 길함 등의 관념을 지니고 있다. 신화에서 나타난 말은 위인의 탄생을 예고하기도 하며, 위업을 달성하거나 출세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주인에게 절대적 충성을 바치거나 영혼의 운반자로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 속신으로 믿는 사주책에는 말띠해에 태어난 사람은 웅변력과 추진력이 강하며, 매사에 적극적이라고 하였다. 이런 말은 후대에 오면서 차차 흉조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햇빛 : 유화의 몸을 비추는 잉태한 것은 하늘과의 연관이 지속이 지속되었음을 의미하며 그 결과 알을 낳았음

알 : 세계를 상징(세계가 깨뜨려져서 하나의 새로운 질서를 세움)하고, 그 알을 새나 짐승이 보호한다는 것은 신성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제유적 표현이다.

활과 화살 :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매개체(신의 권능), 남성 상징으로 곧 왕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 활은 달과 유사하게 생겼으므로 달과 같은 풍요, 강함, 생명력 등을 상징하고, 화살은 모양과 기능의 유사성으로 남성을 상징한다. 따라서, 햇빛과 알, 활은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탄생을 예고하는 상징성을 가지는 것이다.

말 : 유목민적인 일면을 보임

해모수, 유화의 결합으로 주몽탄생 - 고구려왕의 전통성의 근거가 하늘님<천제>의 핏줄을 이은 천손이고, 풍요를 약속해 줄 수 있는 농업신 '하백녀'의 자손이었는데 두고 있다.

#### ● 동명왕 신화(주몽 신화)

**滿開(만개) : 붉은 활과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고구려의 시조왕 동명왕에 관한 건국신화. 주인공인 동명왕의 이름을 따서 ‘주몽신화(朱蒙神話)’라고도 한다. 《동국이상국집》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 밖에 《삼국유사》·《삼국사기》, 광개토왕릉비문의 서두, 《동국여지승람》의 평양조, 《청장관전서 靑莊館全書》 등에 수록되어 있다.

《동국이상국집》의 〈동명왕편〉은 오언고시로서 ‘영웅서사시’라고 일컬어질 만한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가장 장편이어서 이 방면의 자료 가운데에서 가장 우수하다. 이 신화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몽은 하늘의 신인 해모수(解慕漱)를 아버지로, 강물의 신인 하백(河伯)의 딸 유화(柳花)를 어머니로 하여 알로 태어난다. 그 어머니가 몸을 의지하고 있던 부여왕조의 금와왕은 그 큰 알을 버리게 하였지만, 짐승과 새들이 알을 보호하였다.

왕이 직접 그것을 깨뜨리려 하였으나 깨지지 않으므로 할 수 없이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어머니가 그 알을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는데 알 속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다.

그 아기는 매우 출중하고, 특히 활을 잘 쏘았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활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주몽’이라고 불렀다. 금와왕의 일곱 왕자들은 주몽을 시기하여 없애려고 하였다.

주몽의 어머니는 계락을 써서 주몽이 기르고 있던 왕실의 말들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하게 하고, 주몽에게 몸을 피하여 큰일을 도모하게 하였다. 주몽이 도망하여 엄수(淹水 : 혹은 개사수)에 도달하였으나 왕자들의 추격이 급박하였다.

주몽은 물을 향해서 “내가 천제(天帝)의 아들이고 강의 신의 손주(외손)인데 이제 이 추격을 어찌하리오.” 하고 말하자 고기 떼와 자라들이 다리를 놓아 추격을 면하게 되었다.

주몽은 남쪽으로 달아나서 졸본(卒本)에 도착하여 작은 집을 엮어 나라의 기틀로 삼고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고 하였다. 비류국(沸流國) 바로 이웃에 나라를 세웠으므로, 비류국의 송양왕과 주몽 관계를 결정짓는 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주몽은 활쏘기에 이기고, 계락을 써서 북과 나팔을 빼앗고 마침내 주술로 비류땅이 물에 잠기게 함으로써 송양왕의 항복을 얻게 되고 그 뒤 그의 왕국은 더욱 세력을 떨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동명왕신화는, 동명왕의 부신(父神)과 그의 아들 유리(類利)에 관해서는 생략한 것으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 그리고 〈동명왕편〉의 기록을 절충한 것이다. 그러나 동명왕에 관한 문헌들의 기록에는 들고 남이 많다.

《삼국유사》 북부여조에서는 북부여의 천제를 해모수라 하고 그 아들을 해부루(解扶婁)라고 한 뒤, 해부루가 상제(上帝)의 명을 따라 동부여로 옮겨가고 동명이 북부여를 이어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북부여조의 바로 다음에 실린 동부여조에서는 북부여왕, 해부루의 재상인 가관불의 꿈에 천제가 현몽해서 “장차 나의 자손으로 하여금 여기에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니 너희는 피해 가라.” 하니 이는 장차 동명왕이 일어날 징조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두 기록으로 보아, 해모수와 해부루로 이어지는 혈통과 동명왕의 혈통은 별개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해모수가 천제로 일컬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천제의 이름으로 해부루를 내쫓고자 하였다면 두 천제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삼국유사》는 동부여조의 바로 다음 조항인 고구려에서 해모수를 동명왕의 부신 자리에 앉히고 있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삼국유사》는 “단군기(檀君記)에 가로되, 단군은 서하 하백의 딸을 아내로 맞아 한 아이를 낳으니 그 이름이 부루이다.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이제 해모수가 하백의 딸을 취하여 주몽을 낳았다는 기록을 생각컨대, 부루와 주몽은 배다른 형제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 말로 해서 오히려 엇갈림이 더해지고 있다. 배다른 형제가 씨가 다른 형제로 바뀐다고 해도 서하백과 하백이 동일한 존재임을 확인하지 않고는 논리가 합당할 수 없다.

그러나 《삼국사기》에는 유화, 곧 주몽의 어머니가 동부여에서 숨지자, 금와왕이 태후의 예로 장사를 지내고 태후 신묘(神廟)를 세우매, 동명왕이 동부여에 사신을 보냈다고 하였다.

유화가 금와의 태후라면 해부루의 비(妃)가 되는 셈이고 그렇다면 해부루와 동명이 씨가 다른 형제일 수도 없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화가 금와왕에 의해서 태후의 대접을 받았다면 이것은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 그것은 고구려왕조에 있어서도 유화는 동명왕의 태후이기 때문이다.

유화는 동부여와 고구려왕조 양쪽에 걸쳐 태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인물이라는 추정이 여기서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동명왕신화의 바닥에는 부계가 다르고 모계가 같은 존재들 사이의 갈등이 깔려 있는 셈이 된다. 말하자면, 일종의 가족 간의 갈등 내지 혈통 내의 갈등이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갈등은 가장 극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서사적 원리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가계 내의 갈등이 부여왕조에서 고구려왕조를 파생시켰다면, 같은 형제에게서 백제왕조가 형성된 사례에서 그 파생의 대응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동명왕신화는 추정될 수 있는 이 같은 갈등으로 인하여 상고대 신화들 가운데서 가장 파란많은 신화로 남아 있다. 탄생에서부터 이미 장애와 난관을 겪은 한 인물이 박해를 이기는 과정이며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를 짓는 과정 끝에 드디어 한 왕조를 창건하는 줄거리로 해서 동명왕신화는 ‘영웅서사시’로 일컬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동명왕은 기마술과 궁술에 능한 무장다운 면모와 함께 이른바 ‘주술적 탈주’를 감행하고, 또 방술을 부려 비를 내리게 하는 주술사적 면모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주술사적 무장이자 왕인 동명왕에게서 상고대 왕권의 편모를 볼 수 있다.

《참고문헌》 韓國說話文學研究(張德順, 서울大學校出版部, 1978), 韓國의 神話(金烈圭, 一潮閣, 1980), 韓國人의 神話(韓相壽, 文音社, 1980), 韓國民俗大觀 6-口碑傳承·其他-(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1982). 金烈圭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ebs부교재] 조신설화

조신(調信)의 꿈 - 조신 설화



옛날 신라(新羅)가 서울이었을 때 세규사(世逵寺)—지금의 흥교사(興教寺)—의 장원(莊園)이 명주(溟洲) 날리군(捺李郡)—지리지(地理志)를 상고해 보면, 명주에는 날리군(捺李郡)이 없고 오직 날성군(捺城郡)이 있을 뿐이다. 이것은 본래 날생군(捺生郡)이니 지금의 영월(寧越)이다. 또 우수주(牛首州) 영현(領懸)에 날영군(捺靈郡)이 있는데 본래는 날이군(捺已郡)이요 지금의 강주(剛州)다. 우수주(牛首州)는 지금의 춘주(春州)니 여기에 말한 날리군(捺李郡)은 어느 곳인지 알수가 없다. —에 있었는데, 본사(本寺)에서 중 조신(調信)을 보내서 장원(莊園)을 맡아 관리하게 했다. 조신이 장원에 와서 태수 김흔(金昕)의 딸을 좋아하고 아주 반했다.

여러 번 낙산사(洛山寺) 관음보살(觀音菩薩) 앞에 가서 남몰래 그 여인과 살게 해 달라고 빌었다. 이로부터 몇 해 동안에 그 여인에게는 이미 배필이 생겼다. 그는 또 불당(佛堂) 앞에 가서, 관음보살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다가 생각하는 마음에 지쳐서 잠시 잠이 들었다.

꿈 속에 갑자기 김씨 낭자(娘子)가 기쁜 낯빛을 하고 문으로 들어와 활짝 웃으면서,

"저는 일찍부터 스님을 잠깐 뵈고 알게 되어 마음 속으로 사랑해서 잠시도 잊지 못했으나 부모의 명령에 못 이겨 역지로 떠난 사람에게로 시집갔었습니다. 지금 내외(內外)가 되기를 원해서 온 것입니다."

이에 조신은 매우 기뻐하며 그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녀와 사십여 년 간 같이 살면서 자녀 다섯을 두었다. 집은 다만 네 벽뿐이고, 좋지 못한 음식마저도 계속해 갈 수가 없었고, 마침내 풀이 말이 아니어서 식구들을 이끌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얻어먹고 지냈다. 이렇게 십 년 동안 초야(草野)로 두루 다니니 옷은 여러 조각으로 찢어져 몸도 가릴 수가 없었다. 마침 명주(溟洲) 해현령(蟹縣嶺)을 지날 때 십오 세 되는 큰아이가 갑자기 굶어 죽어 통곡하면서 길가에 묻었다. 남은 네 식구를 데리고 그들 내외는 우곡현(羽曲懸)—지금의 우현(羽懸)—에 이르러 길가에 모옥(茅屋)을 짓고 살았다. 이제 내외는 늙고 병들었다. 게다가 굶주려서 일어나지도 못하니, 십 세 된 계집아이가 밥을 빌어다 먹는데, 다니다가 마을 개에게 물렸다. 아픈 것을 부르짖으면서 앞에 와서 누웠으니 부모도 목이 메어 눈물을 몇 줄이고 흘렸다.

부인이 눈물을 씻더니 갑자기,

"내가 처음 그대를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나이도 젊었으며 입은 웃도 깨끗했었습니다. 한 가지 음식도 그대와 나누어 먹었고 옷 한 가지도 그대와 나누어 입어, 집을 나온 지 오십 년 동안에 정(情)은 맺어져 친밀해졌고 사랑도 굳게 엮혔으니 가위 두터운 인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는 쇠약한 병이 해마다 더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더욱 닥쳐오는데 남의 집 결방살이나 하찮은 음식조차도 빌어서 얻을 수가 없게 되었으며, 수많은 문전(門前)에 걸식하는 부끄러움은 산더미보다 더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추워하고 배고파해도 미처 돌봐주지 못하는데 어느 겨울에 사랑에 있어 부부간의 애정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젊은 얼굴과 예쁜 웃음도 풀 위의 이슬이요, 지초(芝草)와 난초 같은 약속도 바람에 나부끼는 버들가지 같을 뿐입니다. 이제 그대는 내가 있어서 누(累)가 되고 나는 그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대 때문에 더 근심이 됩니다. 가만히 옛날 기쁘던 일을 생각해 보니, 그것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대와 내가 어찌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못 새가 다 함께 굶어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짝 잃은 난조(鸞鳥)가 거울을 향하여 짝을 부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순경일 때에는 친하고 역경일 때에는 버리는 것이 인정(人情)상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가고 머무는 것이 사람의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요, 헤어지고 만남에는 운명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여기서 서로 헤어지도록 하십시오."

조신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각각 아이 둘씩 나누어 데리고 장차 떠나려 하니 여인이,

"나는 고향으로 갈 테니 그대는 남쪽으로 가십시오."

이리하여 서로 작별하고 길을 떠나려 하는데 꿈에서 깨었다.

타다 남은 등잔불은 깜박거리고 밤도 이제 새려고 한다. 아침이 되었다. 수염과 머리털은 모두 희어졌고 망연(然)히 세상 일에 뜻이 없다. 괴롭게 살아가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한평생의 고생을 다 겪고 난 것과 같아 재물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이 깨끗이 없어졌다. 이에 관음보살의 상(像)을 대하기가 부끄러워지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을 참을 길이 없다. 그는 돌아와서 해현에 묻은 아이를 파보니 그것은 바로 돌미륵(石彌勒)이다. 물로 씻어서 근처에 있는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가 장원을 맡은 책임을 내놓고 사재(私財)를 내서 정토사(淨土寺)를 세워 부지런히 착한 일을 했다. 그 후에 어디서 세상을 마쳤는지 알 수가 없다.[출전 : 삼국유사(三國遺事)]

옛날 신라(新羅)가 서울이었을 때 세규사(世達寺)—지금의 흥교사(興教寺)—의 장원(莊園)이 명주(溟洲) 날리군(捺李郡)—지리지(地理志)를 상고해 보면, 명주에는 날리군(捺李郡)이 없고 오직 날성군(捺城郡)이 있을 뿐이다. 이것은 본래 날생군(捺生郡)이니 지금의 영월(寧月)이다. 또 우수주(牛首州) 영현(領懸)에 날영군(捺靈郡)이 있는데 본래는 날이군(捺已郡)이요 지금의 강주(剛州)다. 우수주(牛首州)는 지금의 춘주(春州)니 여기에 말한 날리군(捺李郡)은 어느 곳인지 알 수가 없다.—에 있었는데, 본사(本寺)에서 중 조신(調信)을 보내서 장원(莊園)을 맡아 관리하게 했다. 조신이 장원에 와서 태수 김흔(金昕)의 딸을 좋아하고 아주 반했다.

여러 번 낙산사(洛山寺) 관음보살(觀音菩薩) 앞에 가서 남몰래 그 여인과 살게 해 달라고 빌었다. 이로부터 몇 해 동안에 그 여인에게는 이미 배필이 생겼다. 그는 또 불당(佛堂) 앞에 가서, 관음보살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다가 생각하는 마음에 지쳐서 잠시 잠이 들었다.

꿈속에 갑자기 김씨 여자(娘子)가 기쁜 낯빛을 하고 문으로 들어와 활짝 웃으면서, "저는 일찍부터 스님을 잠깐 뵈고 알게 되어 마음 속으로 사랑해서 잠시도 잊지 못했으나 부모의 명령에 못 이겨 억지로 딴 사람에게로 시집갔었습니다. 지금 내 외(內外)가 되기를 원해서 온 것입니다."

이에 조신은 매우 기뻐하며 그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녀와 사십여 년 간 같이 살면서 자녀 다섯을 두었다. 집은 다만 네 벽뿐이고, 좋지 못한 음식마저도 계속해 갈 수가 없었고, 마침내 꼴이 말이 아니어서 식구들을 이끌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얻어먹고 지냈다. 이렇게 십 년 동안 초야(草野)로 두루 다니니 옷은 여러 조각으로 찢어져 몸도 가릴 수가 없었다. 마침 명주(溟洲) 해현령(蟹縣嶺)을 지날 때 십오 세 되는 큰아이가 갑자기 굶어 죽어 통곡하면서 길가에 묻었다. 남은 네 식구를 데리고 그들 내외는 우곡현(羽曲懸)—지금의 우현(羽懸)—에 이르러 길가에 모옥(茅屋)을 짓고 살았다. 이제 내외는 늙고 병들었다. 게다가 굶주려서 일어나지도 못하니, 십 세 된 계집 아이가 밥을 빌어다 먹는데, 다니다가 마을 개에게 물렸다. 아픈 것을 부르짖으면서 앞에 와서 누웠으니 부모도 목이 메어 눈물을 몇 줄이고 흘렸다.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부인이 눈물을 씻더니 갑자기,

"내가 처음 그대를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나이도 젊었으며 입은 옷도 깨끗했었습니다. 한 가지 음식도 그대와 나누어 먹었고 옷 한 가지도 그대와 나누어 입어, 집을 나온 지 오십 년 동안에 정(情)은 맺어져 친밀해졌고 사랑도 굳게 얽혔으니 가위 두터운 인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는 쇠약한 병이 해마다 더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더욱 닥쳐오는데 남의 집 결방살이나 하찮은 음식조차도 빌어서 얻을 수가 없게 되었으며, 수많은 문전(門前)에 걸식하는 부끄러움은 산더미보다 더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추워하고 배고파해도 미처 돌봐 주지 못하는데 어느 겨를에 사랑에 있어 부부간의 애정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붉은 얼굴과 예쁜 웃음도 풀 위의 이슬이요, 지초(芝草)와 난초 같은 약속도 바람에 나부끼는 버들가지입니다. 이제 그대는 내가 있어서 누(累)가 되고 나는 그대 때문에 더 근심이 됩니다. 가만히 옛날 기쁘던 일을 생각해 보니, 그것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대와 내가 어찌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못 새가 다 함께 굶어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짝 잃은 난조(鸞鳥)가 거울을 향하여 짝을 부르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추우면 버리고 더우면 친하는 것은 인정(人情)에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행하고 그치는 것은 인력(人力)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 것도 운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컨대 이 말을 따라 헤어지기로 합시다."

조신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각각 아이 둘씩 나누어 데리고 장차 떠나려 하니 여인이,

"나는 고향으로 갈 테니 그대는 남쪽으로 가십시오."

이리하여 서로 작별하고 길을 떠나려 하는데 꿈에서 깨었다.

타다 남은 등잔불은 깜박거리고 밤도 이제 새려고 한다. 아침이 되었다. 수염과 머리털은 모두 희어졌고 망연(然)히 세상 일에 뜻이 없다. 괴롭게 살아가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한평생의 고생을 다 겪고 난 것과 같아 재물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이 깨끗이 없어졌다. 이에 관음보살의 상(像)을 대하기가 부끄러워지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을 참을 길이 없다. 그는 돌아와서 해현에 묻은 아이를 파보니 그것은 바로 돌미륵[石彌勒]이다. 물로 씻어서 근처에 있는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가 장원을 맡은 책임을 내놓고 사재(私財)를 내서 정토사(淨土寺)를 세워 부지런히 착한 일을 했다. 그 후에 어디서 세상을 마쳤는지 알 수가 없다.<삼국유사(三國遺事)>(이민수 역)

옛날 신라(新羅)가 서울이었을 때 세규사(世遠寺)—지금의 흥교사(興教寺)—의 장원(莊園)이 명주(溟洲) 날리군(捺李郡)에 있었다. 본사(本寺)에서는 중 조신(調信)을 보내서 장원(莊園)을 맡아 관리하게 했는데, 조신이 장원에 와 있으면서 태수 김흔(金昕) 공의 딸을 좋아하여 몹시 반해 버렸다. 그는 여러 번 낙산사(洛山寺) 관음보살(觀音菩薩) 앞에 가서 남몰래 그 여인과 살게 해 달라고 빌었다. 이러기를 수년간, 그 사이에 여인은 이미 시집을 가 버리고 말았다. 조신은 다시 불당(佛堂) 앞에 가서, 관음보살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 주지 않았음을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었다. 그는 생각하는 마음에 지쳐서 깜박 잠이 들어 꿈을 꾸었다.

꿈속에 홀연히 김씨 낭자(娘子)가 반가운 얼굴로 문으로 들어와 활짝 웃으면서 말했다.

"저는 전부터 스님을 어렵듯이 알고부터는 마음속으로 사랑해서 잠시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명령에 못 이겨 역지로 떠 사람에게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죽어서도 한 무덤에 묻힐 반려가 되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에 조신은 매우 기뻐 어쩔 줄을 몰라 그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녀와 사십여 년 간 같이 살면서 자녀 다섯을 두었다. 그러나 집은 다만 네 벽뿐이고, 나물 죽마저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다. 마침내 실의에 찬 모습으로 식구들을 이끌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간신히 얻어먹고 지냈다. 이렇게 십 년 동안 초야로 두루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해매 다니니 옷은 누덕누덕 헤어져 몸조차 제대로 가릴 수가 없었다. 명주(溟洲) 해현령(蟹縣嶺)을 지날 때 십오 세 되는 큰아이가 갑자기 굶어 죽었다. 통곡을 하면서 길가에 묻었다. 남은 네 아이를 데리고 그들 내외는 우곡현(羽曲懸)-지금의 우현(羽懸)-에 이르러 길가에 모옥(茅屋)을 짓고 살았다. 부부는 이미 늙고 병이 들었다. 거기에다가 굶주림에 지쳐 일어나지도 못했다. 십 세 된 계집 아이가 밥을 빌러 다니다가 마을 개에게 물렸다. 아파서 울부짖으면서 앞에 와서 누으니, 부부는 탄식을 하며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아내가 눈물을 훔치더니 갑자기 말을 꺼냈다.

"내가 처음 그대를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다웠고 나이도 젊었으며 입은 웃도 깨끗했고 고맙습니다. 한 가지라도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그대와 나누어 먹었고, 열마 안 되는 옷감이라도 생기면 그대와 나누어 입었습니다. 이렇게 살아 온 지 오십년 동안에 정(情)은 더 깊어졌고, 사랑은 굳게 얽혀졌으니, 정말 두터운 인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는 쇠약한 병이 해마다 더해 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더욱 핍박해 옵니다. 남의 집 결방살이나 간장 한 병의 구걸도 사람들은 용납해 주지를 않으니, 수많은 문전에 걸식하는 부끄러움은 무겁기가 산더미 같았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이 추워하고 배고파해도 미처 돌봐 주지 못하는데, 어느 겨를에 사랑이 있어 부부간의 애정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젊은 얼굴과 예쁜 웃음은 풀 위의 이슬과 같고, 굳고 향기롭던 그 가락도 바람에 나부끼는 버들가지 같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에겐 내가 있어서 누가 되고 나는 당신 때문에 더 근심이 됩니다. 곰곰이 지난날의 기쁘던 일을 생각해 보니, 그것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신과 내가 어찌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못 새가 다함께 굶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짝 잃은 난조가 거울을 향하여 짝을 부르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순경일 때는 따르고 역경일 때는 버리는 것이 인정에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가고 머무르는 것이 사람의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며, 헤어지고 만나는 것도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 말을 따라 헤어지기로 합시다."

조신의 아내의 이 같은 말을 듣자 무척 기뻐했다. 그래서 각각 아이 둘씩 나누어 데리고 장차 떠나려 할 때 아내는 말했다.

"나는 고향으로 갈 테니 당신은 남쪽으로 가십시오."

서로 잡았던 손을 막놓고 돌아서서 길을 떠나려 할 때 조신은 꿈에서 깨었다. 타다 남은 등잔불은 깜박거리고 밤도 이제 새려고 했다.

이튿날 아침에 보니 수염과 머리털은 모두 하얗게 세어 있었다. 멍청히 넋이 나간 듯 세상 일에 뜻이 없어졌다. 이미 수고로운 인생에 싫증이 나 마치 한 평생의 고생을 다 겪고 나 것과 같았으며, 재물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이 깨끗이 사라졌다. 이에 관음보살의 상(像)을 대하기가 부끄러워지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을 참을 길이 없었다.

조신은 해현으로 가서 꿈 속에서 굶어 죽어 묻었던 큰 아이를 파 보니 그것은 바로 석미륵[石彌勒]이었다. 물로 깨끗이 씻어서 근처에 있는 절에다 봉안 한 후, 서울로 돌아가 장원을 맡은 책임을 내놓고 사재(私財)를 기울여 정토사(淨土寺)를 세우고는 부지런히 착한 일을 쌓았다. 그 후에 어디서 세상을 마쳤는지 알 수가 없다. - <삼국유사(三國遺事)->

## ■요점 정리

- 갈래 : 설화(서사), 전설, 사원 연기 설화
- 성격 : 환몽적, 비극적
- 내용 : 일생의 세속적 욕망은 한 순간의 꿈이요, 고통은 근원이니 집착을 버려야 한다.
- 짜임 :
  - 구성 : 3단 구성('조신몽'은 환몽 설화의 전형적인 3단계구성 양식, 액자 형태의 환몽 구조)[현실 - 꿈 - 현실]
  - 1. 배경 제시(도입부)
  - 2. 문제 제기 (김흔의 딸에 대한 인간적 욕망에 사로잡힌 조신, 관음보살에게 자신의 욕망 성취를 비는 조신)
    - 꿈꾸기 전의 단계
  - 3. 소망 달성 (김흔의 딸이 찾아와 부부가 되기를 소망함)
  - 4. 고통의 삶 (사십여 년을 가난하게 산 조신 부부, 가난이 부부와 자식에게 고통을 주고, - 세속적 욕망의 한계)
  - 5. 이별 (헤어짐을 말하는 부인과 이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조신)
    - 꿈속에서의 체험
  - 6. 각성 (세속적 욕망으로부터 초탈한 조신 - 깨달음의 경지)
  - 7. 귀의 (불교적 각성으로 정토사의 건립과 후일담 사원 연기 설화의 성격)
    - 깨어난 뒤의 단계
- 문체 : 역어체, 설화체
- 주제 : 인간이 가진 욕망의 무상함, 인생 무상, 세속적 욕망은 인간의 근원적 고통
- 의의 : 환몽 소설의 연원이 되는 설화로, 후에 김만중의 '구운몽' 및 이광수의 '꿈'이라는 소설에 영향을 주었고, 동일 모티브에 의한 다양한 변이 과정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작품이다.
- 줄거리 : 조신은 경주의 세달사(世達寺 : 뒤의 興教寺)에 속했던 명주(溟州 : 강릉) 장원(莊園)의 지장(知莊 : 장원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임명되었다.  
그곳에서 군수인 김흔(金昕)의 딸을 본 뒤 매혹되어 낙산사(洛山寺) 대비관음상(大悲觀音像) 앞에서 그 사랑을 얻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다. 수년 동안 정성을 다 하였으나 그녀가 이미 출가하여 자기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것을 알고, 관음상 앞에 가서 원망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다.  
뜻밖에 그 여자가 나타나서 사실은 마음으로 그를 사랑해 왔으나 부모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억지로 남의 아내가 되었지만, 이제 함께 살기 위해서 왔다고 하였다. 그는 기뻐하여 그녀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서 살림을 시작하였다.  
40년 동안 깊은 정을 나누고 살면서 자식 5남매를 거느리게 되었으나 가난하여 사방을 떠돌아다니며 10년 동안 걸식하였다. 명주의 해현령(蟹縣嶺)에서 15세 된 큰 아들이 굶어 죽자 길가에 묻었고, 우곡현(羽曲縣)에 이르러서 길가에 초막을 짓고 살았다.  
두 부부가 늙고 병들어서 움직일 수 없게 되자 10세 된 딸이 걸식하였는데, 그만 동네 개에게 물려 드러눕게 되었다. 부부가 함께 통곡하다가, 50년 동안 고락을 같이했으나 이제는 늙고 병들어 빌어먹기도 어렵고 자식들도 헐벗고 굶주려 어찌할 수 없으니 헤어져서 살아갈 길을 찾자고 하였다.  
부부는 아이를 둘씩 나누어 데리고 남북으로 정처없이 헤어지려던 차에 꿈에서 깨어났다. 그의 머리는 백발이 되어 있었고, 속세에 살려던 뜻이 사라졌으며, 인생의 허무와 회한을 느꼈다. 그 길로 해현령에 가서 시체를 묻은 곳을 파보았더니 돌미륵이 나오므로 이를 이웃 절에 봉안하였다.  
그 뒤 정토사(淨土寺)를 창건하여 부지런히 정진하고, 그 후 종적을 감추었다.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신화 설화 전설의 차이점

갈래 구분	신화	전설	민담(설화)
전승자의 태도	진실성과 신성성을 인식	진실성을 믿고 중시	흥미와 교훈성을 위주
시간과 장소	아득한 과거, 태초, 신성한 시공간	구체적인 시공간	뚜렷한 시간과 장소가 없음(서사적 과거, 불특정 장소)
증거물	포괄적인 대상(우주, 국가)	특정의 개별적 사물(바위, 하천, 짐승 등)	증거물이 없거나 포괄적인 증거물, 인간
주인공	신적 존재, 신성한 주인공(성씨의 시조 포함)	비범한 인간중심	평범한 인간
주인공의 행위	신적 능력의 발휘	예기치 않는 사태에 좌절	인간적 행동, 초월자의 도움으로 운명을 개척함
결말의 특징	송고함, 종교적	비극적, 운명론적	희극적, 낙천적
전승 범위	민족적, 씨족적	지역적	범세계적
자아와 세계의 관계	자아= 세계(동질성 시대)	자아<세계(자아의 좌절)	자아>세계(자아의 위)

● 출전 : <삼국유사(三國遺事)>제 3권 탑상(塔像)

■ 내용 연구

옛날 신라(新羅)가 서울이었을 때 세류사(世遼寺)-지금의 흥교사(興教寺)-의 장원(莊園 : 봉건 제도하에서 귀족이나 사원이 소유하던 대규모의 토지.)이 명주(溟洲) 날리군(捺李郡)- 지리지(地理志)를 상고해 보면, 명주에는 날리군(捺李郡)이 없고 오직 날성군(捺城郡)이 있을 뿐이다. 이것은 본래 날생군(捺生郡)이니 지금의 영월(寧越)이다. 또 우수주(牛首州) 영현(領懸)에 날영군(捺靈郡)이 있는데 본래는 날이군(捺已郡)이요 지금의 강주(剛州)다. 우수주(牛首州)는 지금의 춘주(春州)니 여기에 말한 날리군(捺李郡)은 어느 곳인지 알수가 없다. 혹은 강원도 양양군으로 강릉 지방에 해당한다고 말함- 에 있었는데, 본사(本寺)에서 중 조신(調信)을 보내서 장원(莊園 : 봉건 제도에서 귀족이나 사원이 소유하던 대규모의 토지)을 맡아 관리하게 했다[조신은 사판(事判) : 절의 모든 재물과 사무를 처리함. / 이판(理判) : 속세(俗世)를 떠나 수도(修道)에 전심하는 일.]. 조신이 장원에 와서 태수 김흔(金昕)의 딸을 좋아하고 아주 반했다.(인간의 근원적 욕망)

여러 번 낙산사(洛山寺) 관음보살(觀音菩薩) 앞에 가서 남몰래 그 여인과 살게 해 달라고 빌었다.[비원(悲願) : 온갖 힘을 기울여서 이루려하는 비장한 소원] 이로부터 몇 해 동안에 그 여인에게는 이미 배필이 생겼다. 그는 또 불당(佛堂) 앞에 가서, 관음보살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다가 생각하는 마음에 지쳐서 잠시 잠이 들었다.(입몽) - 꿈꾸기 전의 단계

꿈 속에 갑자기 김씨 여자(娘子)가 기쁜 낯빛을 하고 문으로 들어와 활짝 웃으면서,(조신이 꿈을 꾸게 되는 장면으로 꿈 속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저는 일찍부터 스님을 잠깐 뵈고 알게 되어 마음 속으로 사랑해서 잠시도 잊지 못했으나 부모의 명령에 못 이겨 억지로 딴 사람에게로 시집갔었습니다. 지금 내 외(內外 : 부부)가 되기를 원해서 온 것입니다[가약(佳約) : 아름다운 약속이란 말로서, 부부가 되기로 하는 언약.]."(인간의 욕망 성취)

이에 조신은 매우 기뻐하며 그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녀와 사십여 년 간 같이 살면서 자녀 다섯을 두었다[꿈 꾸기 전의 욕망을 꿈 속에서 실현함]. 집은 다만 네 벽[초라한 집]뿐이고, 좋지 못한 음식마저도 계속해 갈 수가 없었고, 마침내 꼴이 말이 아니어서 식구들을 이끌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얻어먹고 지냈다[유리결식(流離乞食 : 정치 없이 떠돌아다니며 빌어먹음. 유사어로 유리개걸 또는 유리행걸이 있다. / 동가식서가숙(東家食西家宿) : 먹을 곳 잘 곳이 없어 떠돌아다니며 지냄. 또는 그런 사람./문전결식(門前乞食) :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빌어먹음./ 남부여대(男負女戴) :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이고 간다는 뜻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으로, 가난한 사람이 살 곳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것을 이르는 말]이렇게 십 년 동안 초야(草野 : 시골의 궁벽한 땅)로 두루 다니니 옷은 여러 조각으로 찢어져 몸도 가릴 수가 없었다. 마침 명주(溟洲) 해현령(蟹縣嶺)을 지날 때 십오 세 되는 큰아이가 갑자기 굶어 죽어 통곡하면서 길가에 묻었다. 남은 네 식구를 데리고 그들 내외는 우곡현(羽曲縣)-지금의 우현(羽懸)-에 이르러 길가에 모옥(茅屋 : 띠나 이엉 따위로 이은 허술한 집)을 짓고 살았다. 이제 내외는 늙고 병들었다. 게다가 굶주려서 일어나지도 못하니, 십 세 된 계집아이가 밥을 빌어다 먹는데, 다니다가 마을 개에게 물렸다[설상가상]. 아픈 것을 부르짖으면서 앞에 와서 누웠으니 부모도 목이 메어 눈물을 몇 줄이고 흘렸다.(‘가난’으로 인한 인간 삶의 고통)

부인이 눈물을 씻더니 갑자기,

"내가 처음 그대를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나이도 젊었으며[佳人(佳人) : 이성으로서 애정을 느끼게 하는 사람.] 입은 옷도 깨끗했었습니다. 한 가지 음식도 그대와 나누어 먹었고 옷 한 가지도 그대와 나누어 입어[부부일심동체], 집을 나온 지 오십 년 동안에 정(情)은 맺어져 친밀해졌고 사랑도 굳게 엮혔으니 가위(가히 말한다면, 말 그대로) 두터운 인연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근년에 와서는 쇠약한 병이 해마다 더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더욱 닥쳐오는데[설상가상(雪上加霜): 난처한 일이나 불행이 얹힌 데 덮쳐 잇따라 일어남. 얹힌 데 덮치기. 설상가설(加雪).] 남의 집 결방살이나 하찮은 음식조차도 빌어서 얻을 수가 없게 되었으며, 수많은 문전(門前)에 걸식하는 부끄러움은 산더미보다 더 무겁습니다(참혹한 가난과 고통). 아이들이 추워하고 배고파해도 미처 돌봐주지 못하는데 어느 겨를[틈, 시간]에 사랑에 있어 부부간의 애정[운우지정]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젊은 얼굴과 예쁜 옷음도 풀 위의 이슬이요(젊은 시절의 예쁜 모습이 나이가 들어 추하게 변했다는 뜻), 지초(芝草 : 지치. 높이가 약 30cm 정도의 풀로, 뿌리는 한약재로 씀)와 난초 같은 약속[지란지교(芝蘭之交는 지초(芝草)와 난초(蘭草)의 교제라는 뜻으로, 벗 사이의 맑고도 고귀한 사귀를 이르는 말로, 유사어로 금란지계와 담수지교가 있지만 여기서는 가약이라는 말로 아름다운 약속으로 부부가 되기로 하는 언약을 말함]도 바람에 나부끼는 버들가지 같을 뿐입니다.[ "젊은 얼굴, ~ 같을 뿐입니다." : 이슬은 쉬 사라지는 것이고 버들가지는 미풍에도 흔들리는 언약한 것이다. 젊은 시절의 아름다운 용모나 부부되기로 한 언약(言約)이 세파에 시달려 더 이상 지키기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다시 말해서 이슬은 쉬 사라지는 것이고, 버들가지는 미풍에도 흔들리는 언약한 것이다. 젊은 시절의 아름다운 용모나 부부 되기로 한 언약이 세파에 시달려 더 이상 지키기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이제 그대는 내가 있어서 누(累 ; 근심, 걱정)가 되고 나는 그대 때문에 더 근심이 됩니다. 가만히 옛날 기쁜 일을 생각해 보니, 그것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습니다(욕망이 고통의 시작이었음). 그대와 내가 어찌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못 새[온 가족을 말함]가 다 함께 굶어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짝 잃은 난조(鸞鳥 : 중국 전설에 나오는 상상의 새로, 봉황과 비슷하다는 상상의 새)가 거울을 향하여 짝을 부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못 새가 ~ 낫지 않겠습니까? : 생활 능력이 없는 터에 굳이 여러 식구가 함께 살고자 하는 욕심으로 고생하다가 굶어 죽느니 헤어져서 제각기 살아갈 방도를 찾으며 서로 그리워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 삶의 고달픔을 견디지 못해 비장한 결심을 하는 대목이다. 굶어 죽느니 제각기 살 방도를 찾으며 서로 그리워하는 편이 더 낫다)순경(順境 : 마음먹은 대로 일이 순조롭게 되는 경우, 그 반대는 역경.)일 때에는 친하고 역경[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불행한 처지. 고통이 많은 불행한 처지]일 때에는 버리는 것이 인정(人情)상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만[조강지처(糟糠之妻): 구차하고 천할 때부터 고생을 함께 해온 아내.] 가고 머무는 것이 사람의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요, 헤어지고 만남에는 운명이 있습니다(운명론적 세계관). 바라건대 여기서 서로 헤어지도록 하십시오." (고통과 시련 앞에 나타난 인간의 모습이자, 부인이 욕망 자체를 놓아 버리는 것이라는 불교적 깨달음을 말하고 있음) - 꿈속의 체험

조신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不敢請固所願(불감청고소원) : 감히 청하지는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못하지만, 본래부터 원하고는 있는 것으로 조신이 처음에 품었던 욕망이 보잘것없음을 보여줌] 각각 아이 둘씩 나누어 데리고 장차 떠나려 하니(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던 애정도 가난 앞에서 무의미해짐) 여인이,

"나는 고향으로 갈 테니 그대는 남쪽으로 가십시오."

이리하여 서로 작별하고 길을 떠나려 하는데 꿈에서 깨었다["호화도 거짓 것이오 부귀도 꿈이온대//북망산 언덕에 요령 소리 그쳐지면 // 아무리 뉘우치고 애다라도 미칠 길이 없나니"라는 시조의 주제와 유사함 / ]. - 욕망의 덧없음에 대한 깨달음과 이별 그리고 꿈으로부터 깨어남

타다 남은 등잔불은 깜박거리고 밤도 이제 새려고 한다[고통의 40년 세월이 진행된 시간이 실제로는 전날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의 꿈이었다. 인생의 덧없음을 드러냄]. 아침이 되었다. 수업과 머리털은 모두 희어졌고(꿈 속에서 겪은 생활이 지극히 힘들고 고통스러웠거나 인간이 한 평생 겪을 시련과 고통을 꿈 속에서 모조리 겪었음을 나타냄) 망연[茫然 : 아득함. (아이가 없어서) 멍함]히 세상 일에 뜻이 없다(인간의 욕망과 가치의 무상함에 대한 깨달음). 괴롭게 살아가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한평생의 고생[한단지몽(邯鄲之夢) : 당나라의 노생(盧生)이 한단(邯鄲) 땅에서 여옹(呂翁)의 베개를 빌려서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80년 동안 부귀영화를 다 누렸으나, 깨어 보니 메조로 밥을 짓는 동안이었다는 고사에서, 인생과 영화의 덧없음을 비유한 말. 황량몽(黃梁夢)]을 다 겪고 난 것과 같아 재물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이 깨끗이 없어졌다(인간의 욕망을 극복). 이에 관음보살의 상(像)을 대하기가 부끄러워지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을 참을 길이 없다. 그는 돌아와서 해현에 묻은 아이를 파보니 그것은 바로 돌미륵(石彌勒 : 돌로 만든 미륵보살. 도솔천에 살며, 미래에 인간 세상으로 와서 중생을 건진다는 보살)이다[그는 돌아와서 - 돌미륵(石彌勒)이다. : 이 글에서는 꿈과 현실이 별개가 아니라 꿈 속의 일이 바로 현실로 이어지고 있어, 바로 꿈 속에서 죽은 아들을 묻었던 곳에서 돌미륵이 나왔다는 데서 알 수 있는데, 이를 보면 꿈이 부처의 가르침을 깨닫게 되는 현실의 일부임을 말하고 있다.]. 물로 씻어서 근처에 있는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가 장원을 맡은 책임을 내놓고 사재(私財)를 내서 정토사(淨土寺)를 세워 부지런히 착한 일을 했다(전설로서의 특징인 구체적인 증거물이 있다. 사원 연기 설화). 그 후에 어디서 세상을 마쳤는지 알 수가 없다[ 종적 : 드러난 형상과 자취 또는 간 곳. / 조신의 말년을 애매하게 처리한 이유는 이 작품의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데 중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임].(정토사의 건립과 훗일담) - 깨달음을 얻고 사찰을 세우고 깨달음을 실행함

#### - 조신의 꿈 이야기를 통해 말하는 이가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신은 꿈에서, 현실에서 그토록 바라던 여자와 사랑을 같이 하며 살게 된다. 그러나 소망이 이루어졌음에도 조신은 현실 생활의 다양한 어려움, 즉 빈곤, 가족의 죽음, 이별 등의 삶의 괴로움이 처하게 된다. 이 설화는 조신의 꿈 이야기를 통해 아무리 소망하던 삶이라도 현실의 고난은 피할 수 없으며, 고된 현실은 한갓 꿈에 불과할 뿐이라는 종교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

● 호접지몽(蝴蝶之夢) : 나비가 된 꿈이란 뜻. 중국의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되어 피아(彼我)의 분별을 잊고 즐겁게 놀았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로 그 뜻은 (胡蝶之夢) ① 물아(物我)의 구별을 잊음의 비유. ② 만물 일체(萬物一體)의 심정 ③ 인생의 덧없음의 비유한 말로 출전은(出典) '莊子' 齊物論篇에 있는 말이다. 장자가 어느날 꿈을 꾸었다. 자신은 꽃과 꽃 사이를 훨훨 날아다니는 즐거운 나비 그 자체였다. 그러나 문득 깨어 보니 자기는 분명 장주(莊周)가 아닌가. 이는 대체 장주(莊周)인 자기가 꿈 속에서 나비가 된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나비이고 나비인 자기가 꿈 속에서 장주(莊周)가 된 것일까. 꿈이 현실인가, 현실이 꿈인가. 그 사이에 도대체 어떤 구별이 있는 것인가? 추구해 나가면 인생 그 자체가 하나의 꿈이 아닌가. 《莊子》의 이런 우화(寓話)는 독자를 유현[幽玄 : 사물(事物)의 이치(理致) 또는 아취(雅趣)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깊음]의 세계로 끌어들이어 생각하게 한다. 옛날에 장주(莊周)가 꿈에 나비가 되어, 나비가 된 것을 기뻐하였다. 스스로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즐거워 뜻하는 대로 가고 있어, 자신임을 알지 못했다. 갑자기 깨달으니 곧 莊周가 되어 있었다. 알지 못하겠다. 莊周가 꿈에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꿈에 莊周가 된 것인지를. 莊周와 나비와는 곧 반드시 구별이 있다. 이것을 자연(自然)이 된다고 말한다. '호접몽'이라는 고사 또한 이러한 사고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장주와 나비 사이에는 피상적인 분별, 차이는 있어도 절대적인 변화는 없다. 장주가 곧 나비이고, 나비가 곧 장주라는 경지, 그것이 여기서 강조되는 세계이다. 상대가 없는 세계, 차별이 없는 세계, 이것이 바로 장자가 그린 이상향이다.

● **장자** : '장자'는 전국시대의 사상가로 장자(莊子)는 맹자와 같은 시대의 인물로서 물(物)의 시비(是非) 선악(善惡) 진위(眞僞) 미추(美醜) 빈부(貧富) 귀천(貴賤)을 초월하여 자연 그대로 살아가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제창한 사람이었다. 특히 그가 태어난 송나라는 당시 약소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형적으로 사방으로 적을 맞아 싸워야만 했다. 장자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 인간의 참자유가 무엇인지를 사고하게 되었고, 그 자유를 추구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다. 그 결과 우리들이 흔히 시비, 선악, 미추, 화복 등을 구분짓는 일이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만물은 결국 '하나'의 세계로 돌아간다고 본 것이다.

● 불도에 정진해야 할 승려가 관음보살에게 세속적인 사랑을 이루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에서 느낀 바를 자유롭게 말해 보자.

● **꼼꼼히 읽기**

인간의 욕망의 문제를 불교적 관점에서 잘 다룬 작품이다. 애정과 같은 세속적 욕망을 끊기로 한 승려가 태수의 딸과 인연을 맺게 해 달라고 관음보살에게 기도한다는 설정이 독자의 관심을 끈다. 만약 세속적 욕망이 반드시 끊어버려야 할 것이라면 조신의 이런 행동은 그것을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잘 보여 준다. 그런데, 어렵사리 꿈속에서 이룬 사랑이 행복하기는커녕 정반대로 고통의 연속이어서 사랑을 파기해야만 할 처지에 이르렀고, 애초에 함께 살기를 애원했던 조신은 이제 헤어지자는 부인의 말에 기뻐하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 애정에 대한 기대만큼 환멸도 강렬하여 독자에게 충격을 주는 구성이다.

1. 조신이 꿈속에서 겪은 가난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보자.
2. 조신과 부인의 대화 중 다음 부분이 뜻하는 바를 파악해 보자.

"이제 그대는 내가 있어서 누(累)가 되고 나는 그대 때문에 더 근심이 됩니다. 가만히 옛날 기쁘던 일을 생각해 보니, 그것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습니다."

● **탐구 / 몽유 형식의 전통**

한 인물이 간절히 희망하던 바가 꿈 속에서 실현되면서 우여곡절을 겪은 뒤 꿈에서 깨어나고, 그 꿈속의 경험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는다는 이야기는 동아시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서사적 틀이다. 김만중의 [구운몽], 중국의 [남가태수전(南柯太守傳)], [침중기(枕中記)] 등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3. 조신이 꿈을 꾸기 전에 원했던 것과 꿈에서 깬 후 바뀐 생각을 비교해 보자.
4. [구운몽]에서 성진이 꿈속에서 겪은 것과 조신이 꿈 속에서 겪은 바를 비교해 보고, 꿈에 깬 뒤 두 주인공의 변화가 같은지 토론해 보자.

● **시야 넓히기**

탐구 / 전기(傳奇)의 성격

이 작품은 양식으로 볼 때 전기(傳奇)에 속한다. 전기는 기이한 이야기를 문언(文言, 백화문이 아닌 문어)으로 기록한 것으로 중국 당나라 때 발달한 서사 양식이다. 장르로 볼 때 소설인 것도 있고, 설화로 볼 수 있는 것도 있다. 애정, 역사, 의협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었는데, 한국, 일본, 베트남 등에서 두루 창작되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금오신화], [운영전] 등이 이에 속한다. [최치원]과 [조신전]은 비교적 초기 작품으로, 설화로 보는 학자도 있고 소설로 보는 학자도 있다.

1. 전설(傳說)은 어떤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이 현실 세계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작품에 남아 있는 전설적 요소를 찾아 보자.

2. 이 작품의 끝은 "그 후에 어디서 세상을 마쳤는지 알 수가 없다."로 되어 있다. {금오신화}의 [만복사저포기]의 결말과 비교하여 보자.

표현하기 :

이 작품에서 부인의 헤어지자는 말에 대하여 조신이 답하는 말은 없다. 조신이 부인의 말에 동의하는 말을 한다고 가정하고, 그 말을 창작해 보자.

###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정토사의 건립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사찰 연기 설화에 해당한다. 하지만 배경적인 내용보다도 설화 그 자체가 지닌 구조가 특이하여 서사적 흥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문학에 대한 영향관계 때문에도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이 작품을 설화로서보다도 완전한 소설로 보는 견해가 나오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이름다운 여인을 사모하던 주인공의 현실적 꿈이 꿈속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소원 성취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감내하기 어려운 불행과 고통을 겪는다는 내용은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냐는 질문을 낳게 한다. 이 설화가 불교적인 인생관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도 그러한 문제의식이 불교적인 세계 인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속의 욕망을 끊어야 할 승려가 세속의 처녀에 대한 연정을 성취해 주도록 관음보살(觀音菩薩)에게 빌고 있는 광경에서 현실의 초극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 수 있다. 또한 어렵게 이룬 사랑이 고통의 원인이 되는 데거 사랑에 대한 열망이 부질없는 환상이었음을 알게 되며 또한 인생에 대한 진지한 숙고(熟考)도 가능하게 된다.

평소의 어떤 생각 때문에 꿈속에서 일련의 사건을 체험하고 꿈에서 깨어나 참다운 이치를 깨닫게 된다는 구조를 가진 설화를 환몽 설화라 하는데, '구운몽'과 이 광수의 '꿈'이라는 소설에 영향을 준다. 전설은 이야기 내용의 진실성을 내세우는 뜻에서 구체적 증거물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의 경우에는 세규사와 정토사라는 절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조신이 깨달음을 얻고서 세웠다고 하는 정토사는 이 전설이 이 절의 건립의 내력을 설명하는 사원 연기설화의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설화를 통해 드러나는 주제는 불교적인 것으로, 인생의 즐거움에 대해 욕망은 한 순간의 꿈이요, 고통의 근원이니 그로 인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가르침이라고 하겠다. 또, 이 설화는 남가일몽이라는 성어의 근원이 되는 '남가태수전'과 연관지을 수 있으나, 꿈의 내용이 '조신몽'에서는 불행과 고난의 연속 '남가태수전'에서는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 ● 조신 설화

'삼국유사(三國遺事)' 권3에 수록되어 있는 신라시대의 설화. 일장춘몽(一場春夢)인 인생의 허무를 주제로 한 꿈의 문학으로는 국문학사상 그 원조(元朝)이다. 비록 설화이긴 하나 단편소설 이상의 구성과 압축된 주제를 살렸다. 내용은 신라 때 중 조신(調信)이 명주 태수(溟州太守) 김근의 딸을 보고 홀딱 반했는데, 얼마 후 판 사람에게 출가했으므로 조신은 울면서 그녀를 못내 그리워했다. 하루는 부처를 원망하다가 피곤해서 낮잠을 자는데, 김랑이 부모의 영에 못이겨 결혼은 했지만 당신을 사랑한다며 돌아왔다. 조신은 기뻐하며 고향에 돌아가 40여년을 같이 살았는데, 자식을 다섯이나 두도록 살림은 찢어지게 가난하여 끼니를 끊일 조 한 되 없고 입을 옷도 없어 하는 수없이 자식들을 서로 나누어 막 헤어지려는 찰라 조신은 잠을 깬다. 밖은 이미 어스름한 깊은 밤이 되었고 인생의 덧없음을 깨우친 그 후로는 김랑에게 반했던 마음도 씻고 불도(佛道)에 진력하였다. (자료 출처 : 한국사전연구사간. 국어국문학자료사전)

### ● 조신설화(調信說話)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조신이라는 승려를 주인공으로 한 환몽설화(幻夢說話)로 <삼국유사> 권3 낙산2 대성관음정취조신조에 실려 있다. 신라 때 세규사(世達寺 : 達는 達이 옳다는 설이 있음)의 농장이 명주에 있어서 본사(本寺)에서 조신이라는 중을 농장 감독으로 보냈다. 조신은 태수 김흔공(金昕公)의 딸을 깊이 사모하여 낙산사 대비관을 앞에 나아가서 그 여자와 인연을 맺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벌써 배필이 정해져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갔다. 조신은 법당에 가서 대비보살이 자기의 소원을 성취시켜주지 않음을 원망하여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다가 노곤하여 잠깐 졸았다. 꿈에 갑자기 김씨남자가 조용히 문으로 들어와 "내가 일찍이 당신의 낮을 보고 사랑하여 잊지 못했지만 부모의 명을 어기지 못해 딴 곳으로 출가했습니다. 이제 죽어서 한데 묻힐 친구가 되고자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조신이 미칠 듯이 기뻐서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40여 년을 재미있게 살면서 아이를 5명이나 두었다. 그러나 점점 가난해져서 식구들을 이끌고 빌어먹으며 돌아다니다가 명주 해현령(蟹縣嶺)에 이르렀을 때 15세 된 큰 아이가 굶어죽게 되어 길가에 묻었다. 남은 식구들이 우곡현(羽曲縣)으로 가서 길가에 벉집을 짓고 살았는데 부부가 늙고 병들어 일어나지 못하여 10세 된 계집애가 밥을 빌러 돌아다니다가 동네 개에게 물려 아파 울부짖으니 부모로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다. 너무나 비참해지자 부인은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니 헤어지자고 제안하고 조신도 이에 동의했다. 남녀가 각각 아이들을 2명씩 나누어 맡고 막 떠나려 할 때 홀연히 꿈을 깨니 조그마한 등불만이 어스름하게 비치고 밤은 벌써 깊었는데 수염과 머리가 하얗게 세 있었다. 이에 마치 100년의 괴로움을 겪은 듯하며 세상사에 집착하는 마음이 눈녹듯이 사라졌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성상 앞에서 한없이 참회하고 해현령에 가서 아이를 묻은 곳을 파보니 돌미륵이 있었다. 조신은 돌미륵을 깨끗이 씻어서 가까운 절에 봉안하고 그뒤 서울로 가서 농장의 책임을 사임하고 사재를 털어 정토사(淨土寺)를 짓고 백업(白業)을 부지런히 닦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현실-꿈-현실'이라는 몽유양식(夢遊樣式)을 통해 인생무상이라는 주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환몽설화로 후대의 많은 몽유록(夢遊錄)과 몽자류소설(夢字類小說)에 서사구조를 제공한 것으로 지적되어왔다. 한편 몽중 체험이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특징 때문에 이 이야기는 불교적인 인생무상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히고 있다.(출처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 ■심화 자료

### ● '조신의 꿈'의 전설로서의 특징과 주제

전설은 이야기 내용의 진실성을 내세우는 뜻에서 구체적인 증거물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작품의 경우에는 세규사와 정토사라는 절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정토사는 조신이 나중에 깨달음을 얻고서 세웠다고 하므로 이 전설은 정토사 건립의 내력을 설명하는 사원연기설화가 되는 셈이다.

또한 전설의 주인공이 어떤 심각한 장애에 부딪혀서 시련과 좌절을 겪는 예가 많다는 점은 이 작품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비록 꿈속의 일기기는 하지만 사랑하던 여인과 결혼한 뒤 조신이 겪는 참혹한 가난과 고통은 보통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며, 그의 소망은 엄청난 시련 앞에서 보잘 것없이 무너져서 비극적인 결과에 도달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드러나는 주제는 물론 불교적인 것이다.

한편, 이 전설의 주제를 간략히 정리하면 '인생의 즐거움'에 대한 욕망은 한 순간의 꿈이요 고통의 근원이니 그러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가르침이 될 것이다.

### ● 남가태수전 (南柯太守傳)

중국 당(唐)나라의 전기소설로서 이공좌(李公佐)의 작품. 주인공 순우분이 술에 취하여 선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괴안국(槐安國)이라는 나라의 사신의 초청을 받고 그의 집 마당에 있는 해나무 구멍 속으로 동행하였다. 그리고 그곳의 왕녀와 결혼하고 남가군(南柯郡)의 태수가 되어 호강을 누리다 왕녀가 죽자 귀향을 해서 깨어 보니 그곳이 원래의 자기 집이었다고 한다. 마당으로 내려가 해나무를 베어 조사해 보니 꿈속 나라와 똑같은 개미의 나라가 나타났다고 한다. 현실과 꿈의 세계가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갈피를 못잡을 만큼 혼돈된 속에서 인간의 운명의 허무함을 말해 주는 '침중기(枕中記)'와 비슷한데 '남가기(南柯記)'는 이 작품을 희곡화한 것이다. 그리고 현대 영화 '매트릭스'라는 작품과 주제는 다름장정 꿈과 현실의 혼돈이라는 측면에서는 비교해 볼만하고 유사어로는 남가일몽(南柯一夢)과 괴몽(槐夢), 괴안몽, 남가몽, 남가지몽, 남가기가 있다.

#### ● 한단지몽(邯鄲之夢)

인생과 영화의 덧없음을 이르는 말. 서기 731년에 노생(盧生)이 한단이란 곳에서 여옹(呂翁)의 베개를 빌려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80년 동안 부귀영화를 다 누렸으나 깨어 보니 메조로 밥을 짓는 동안이었다는 데에서 유래한다. 심기제(沈既濟)의 '침중기(枕中記)'에서 나온 말이다. 유사어로 노생지몽과 한단몽이 있다.

#### ● 불경 '잡보장경'의 사라나 비구 설화

주인공 사라나는 왕자의 신분으로 승려가 되었다. 어느 날 악생왕을 모시는 시녀들이 악생왕이 잠든 사이에 그에게 설법을 청하여, 이를 들려준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는 악생왕에게 복수할 것을 결심하고 큰스님을 찾아가 환속하기를 원한다. 그러자 큰스님이 오늘은 잠시 쉬었다가 내일 환속(還俗)하라고 한다. 사라나는 잠을 자던 중 꿈속에서 자신의 소원대로 환속하여 왕이 되고, 악생왕과 복수의 싸움을 벌인다. 그러나 싸움에 패하고 악생왕에게 잡혀 처형당하게 되는데, 그 순간에 꿈을 깨다. 이에 사라나는 생사(生死)와 싸움의 허망함을 깨닫고 불도에 힘써 아라한 즉 깨달은 자의 경지에 도달한다.

#### ● 문학사적 의의 및 줄거리

'조신의 꿈'은 입장춘몽인 인생의 허무를 주제로 한 '꿈'의 문학으로는 국문학사상 그 원조이다. 비록 설화이긴 하나 단편 소설 이상의 긴밀한 구성과 압축된 주제를 살렸다. 그 줄거리는 이렇다.

신라 때의 스님 조신이 명주 태수 김흔의 딸을 보고 훌쩍 반했는데, 얼마 후 그녀가 딴 사람에게 출가했으므로 조신은 울면서 그녀를 못내 그리워했다. 하루는 부처님을 원망하다가 피곤해서 낮잠을 자는데, 김량이 부모의 영에 어쩔 수 없어 결혼은 했지만 당신을 사랑한다며 돌아왔다. 조신은 기뻐하며 고향에 돌아가 40여년을 같이 살았는데, 자식을 다섯이나 두도록 살림은 찢어지게 가난하여 끼니를 꿍ail 조 한 되 없고 입을 옷도 없어 하는 수 없이 자식들을 서로 나누어 막 헤어 지려는 찰나 잠을 깬다. 밖은 이미 어스름한 밤이 되었고 인생의 덧없음을 깨우친 그 후로는 김량에게 반했던 마음도 씻고 불도(佛道)에 전력하였다

#### ● 환몽설화(幻夢說話)

꿈속에서 어떤 사건을 체험하고 꿈에서 깨어나 참다운 이치를 깨닫게 된가는 구조를 가진 설화를 가리킨다. 평소의 욕망이 빌미가 되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 허망함을 말하며 세속적 욕망의 무가치함을 말하는 형식이다. 중국의 경우 '남가 태수전(南柯太守傳)', '침중기(枕中記)' 등이 대표적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김만중의 '구운몽(九雲夢)', 이광수의 '꿈' 등에서 이러한 구조가 나타난다. 남가일몽(南柯一夢)이라는 고사 성어의 근원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

#### ● 조신(調信)

생물년 미상. 신라의 승려. 꿈을 통하여 애욕(愛欲)의 무상함을 깨친 일화를 남기고 있다. 조신은 경주의 세달사(世達寺: 뒤의 興教寺)에 속했던 명주(溟州: 강릉) 장원(莊園)의 지장(知莊: 장원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임명되었다.

그곳에서 군수인 김흔(金昕)의 딸을 본 뒤 매혹되어 낙산사(洛山寺) 대비관음상(大悲觀音像) 앞에서 그 사랑을 얻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다. 수년 동안 정성을 다하였으나 그녀가 이미 출가하여 자기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것을 알고, 관음상 앞에 가서 원망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다.

뜻밖에 그 여자가 나타나서 사실은 마음으로 그를 사랑해 왔으나 부모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억지로 남의 아내가 되었지만, 이제 함께 살기 위해서 왔다고 하였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다. 그는 기뻐하여 그녀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서 살림을 시작하였다.

40년 동안 깊은 정을 나누고 살면서 자식 5남매를 거느리게 되었으나 가난하여 사방을 떠돌아다니며 10년 동안 걸식하였다. 명주의 해현령(蟹縣嶺)에서 15세 된 큰 아들이 굶어 죽자 길가에 묻었고, 우곡현(羽曲縣)에 이르러서 길가에 초막을 짓고 살았다.

두 부부가 늙고 병들어서 움직일 수 없게 되자 10세 된 딸이 걸식하였는데, 그만 동네 개에게 물려 드러눕게 되었다. 부부가 함께 통곡하다가, 50년 동안 고락을 같이했으나 이제는 늙고 병들어 빌어먹기도 어렵고 자식들도 헐벗고 굶주려 어찌 할 수 없으니 헤어져서 살아갈 길을 찾자고 하였다.

부부는 아이를 둘씩 나누어 데리고 남북으로 정처없이 헤어지려던 차에 꿈에서 깨어났다. 그의 머리는 백발이 되어 있었고, 속세에 살려던 뜻이 사라졌으며, 인생의 허무와 회한을 느꼈다. 그 길로 해현령에 가서 시체를 묻은 곳을 파보았더니 돌미륵이 나오므로 이를 이웃 절에 봉안하였다.

그 뒤 정토사(淨土寺)를 창건하여 부지런히 정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광수(李光洙)는 〈꿈〉이라는 작품을 썼고, 그것은 다시 영화로 제작되었다. <<참고문헌>> 三國遺事.(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쾌적수유 - 잠시 쾌활한 일 - 일연 쾌적수유 - 지은이 : 일연**

연대 : 고려시대

성격 : 비유적, 불교적

주제 : 인생무상(人生無常), 조신설화에 대한 일연의 논평

특징 : '조신설화'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운문 형식으로 기술하여 주제를 더욱 강조함.

출전 : 삼국

● 구운몽

# [ebs부교재] 차귀 설화

## 지귀 설화(志鬼說話)



신라 선덕 여왕 때에 지귀(志鬼)라는 젊은이가 있었다. 지귀는 활리역(活里驛) 사람인데, 하루는 서라벌에 나왔다가 지나가는 선덕 여왕을 보았다. 그런데 여왕이 어찌나 아름다웠던지 그는 단번에 여왕을 사모하게 되었다.

선덕 여왕은 진평왕의 만딸로, 그 성품이 인자하고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용모가 아름다워서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송(稱頌)과 찬사를 받았다. 그래서 여왕이 한번 행차(行次)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여왕을 보려고 거리를 온통 메웠다. 지귀도 그러한 사람들 틈에서 여왕을 한 번 본 뒤에는 여왕이 너무 아름다워서 혼자 여왕을 사모(思慕)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으며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선덕 여왕을 부르다가, 그만 미쳐 버리고 말았다.

"아름다운 여왕이여, 나의 사랑하는 선덕 여왕이여!"

지귀는 거리로 뛰어다니며 이렇게 외쳐댔다. 이를 본 관리들은 지귀가 지껄이는 소리를 여왕이 들을까 봐 걱정이었다. 그래서 관리들은 지귀를 붙잡아다가 매질을 하며 야단을 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어느 날 여왕이 행차를 하게 되었다. 그 때 어느 골목에서 지귀가 선덕 여왕을 부르면서 나오다가 사람들에게 붙들렸다. 그래서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떠들썩했다. 이를 본 여왕은 뒤에 있는 관리에게 물었다.

"대체 무슨 일이나?"

"미친 사람이 여왕님 앞으로 뛰어나오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그렇습니다."

"나한테 온다는데 왜 붙잡았느냐?"

"아뢰옵기 황송합니다만, 저 사람은 지귀라고 하는 미친 사람인데, 여왕님을 사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리는 큰 죄나 진 사람처럼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고마운 일로구나!"

여왕은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하고는, 지귀에게 자기를 따라오도록 관리에게 말한 다음, 절을 향하여 발걸음을 떼어 놓았다.

한편, 여왕의 명령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그러나 지귀는 너무도 기뻐서 춤을 덩실덩실 추며 여왕의 행렬을 뒤따랐다.

선덕 여왕은 절에 이르러 부처에게 기도를 올리었다. 그러는 동안 지귀는 절 앞의 탑 아래에 앉아서 여왕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여왕은 좀체로 나오지 않았다. 지귀는 지루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안타깝고 초조했다. 그러다가 심신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지귀는 그 자리에서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여왕은 기도를 마치고 나오다가 탑 아래에 잠들어 있는 지귀를 보았다. 여왕은 그가 가없다는 듯이 물끄러미 바라보고는 팔목에 감았던 금팔찌를 뽑아서 지귀의 가슴 위에 놓은 다음 발길을 옮기었다.

여왕이 지나간 뒤에 비로소 잠이 깬 지귀는 가슴 위에 놓인 여왕의 금팔찌를 보고는 놀랐다. 그는 여왕의 금팔찌를 가슴에 꼭 껴안고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랐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다. 그러자 그 기쁨은 다시 불씨가 되어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는가 싶더니, 이내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가슴 속에 있는 불길은 몸 밖으로 터져 나와 지귀를 어느 새 새빨간 불덩어리로 만들고 말았다. 처음에는 가슴이 타더니 다음에는 머리와 팔다리로 옮겨져서 마치 기름이 묻은 솜뭉치처럼 활활 타올랐다. 지귀는 있는 힘을 다하여 탑을 잡고 일어서는데, 불길은 탑으로 옮겨져서 이내 탑도 불기둥에 휩싸였다. 지귀는 꺼져 가는 숨을 내쉬며 멀리 사라지고 있는 여왕을 따라가려고 허위적허위적 걸어가는데, 지귀 몸에 있는 불 기운은 거리에까지 퍼져서 온 거리가 불바다를 이루었다.

이런 일이 있던 뒤부터 지귀는 불귀신으로 변하여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게 되었다. 사람들은 불귀신을 두려워하게 되었는데, 이 때 선덕 여왕은 불귀신을 쫓는 주문(呪文)을 지어 백성들에게 내놓았다.

지귀는 마음에서 불이 일어	志鬼心中火(지귀심중화)
몸을 태우고 화신이 되었네.	燒身變火神(소신변화신)
푸른 바다 밖 멀리 흘러갔으니,	流移滄海外(유이창해외)
보지도 말고 친하지도 말지어다.	不見不相親(불견불상친)

백성들은 선덕 여왕이 지어 준 주문을 써서 대문에 붙이었다. 그랬더니 비로소 화재를 면할 수 있었다. 이런 일이 있던 뒤부터 사람들은 불귀신을 물리치는 주문을 쓰게 되었는데, 이는 불귀신이 된 지귀가 선덕 여왕의 뜻만 좇기 때문이라고 한다.

### ■요점 정리

- 갈래 : 설화(서사), 민담
- 구성 : 4단 구성
  - 발단 : 지귀의 선덕 여왕에 대한 사모
  - 전개 : 선덕 여왕과의 만남과 헤어짐
  - 절정 : 화신으로서의 변모
  - 결말 : 주문에 의한 화재의 예방
- 문체 : 역어체, 설화체
- 성격 : 순애(純愛)적, 해원(解冤)적
- 주제 : 지귀의 사랑과 선덕여왕의 넉넉한 품성, 화신(火神)의 내력
- 의의 : 우리나라 귀신 지괴설화의 효시이며, 화신의 내력과 그에 따른 풍속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귀의 순수한 사랑과 여왕의 너그러운 품성을 드러낸다.

### ■내용 연구

- 칭송 : 칭찬하여 일컬음
- 행차 : 웃어른이 길 가는 것을 높이어 이르는 말
- 사모 : 정을 들이고 애뜻하게 몹시 생각하며 그리워함.

### ■이해와 감상

지귀 설화(志鬼說話)는, 즉 심화요탑(心火繞塔)이라는 제목으로 수이전에 실렸다가 대동운부군옥에 전재되어 전하는 설화로, 화재 예방을 위한 풍속을 사랑과 연관시켜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선덕 여왕이 주문(呪文)을 지어 불귀신(不神)의 원한을 달래어 물리치게 된 연유를 담은 풀이 기능의 설화 문학이다. 한(恨)을 소재로 하는 전통은 우리 문학사에서 신라 시대를 비롯하여 고려와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오늘에까지 이어져 왔다. 여기에는 주술성(呪術性)을 동반한 풀이 기능이 결들여져 나타나고 있다. 불과 사랑을 관련지어 사랑의 의미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 ■심화 자료

#### ● 선덕 여왕과 관련된 설화

제 27대 덕만의 시호는 선덕 여왕이요, 성은 김씨요, 아버지는 진평왕이다. 정관 6년 임진(632)에 즉위하여 나라를 다스린 지16년 동안, 미리 기미를 안 것이 세 가지가 있었다.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첫째는, 당(唐)나라 태종(太宗)이 붉은빛과 자주빛과 흰빛의 세 가지 빛으로 모란을 그려서 그 씨 3승(升)과 함께 보냈다. 왕은 이 그림의 꽃을 보더니 말하기를,

"이 꽃은 반드시 향기가 없을 것이다."

하고 뜰에 심으라고 명령했다. 거기에서 꽃이 피고 지는 것을 기다려 보니, 과연 그 마로가 같았다.

둘째는, 영묘시(靈廟詩) 옥문지(玉門池)에 거울에 개구리가 많이 모여들어 3,4일 동안 울었다. 나라 사람들이 괴상히 여겨 왕에게 물으니, 왕은 급히 각간(角干) 알천(闕川) 등에게 명하였다. 정한 군사 2천 명을 거느리고 속히 서교(西郊)로 가서 여근곡(女根谷)을 찾아가면 반드시 적(賊)의 군사가 있을 것이니, 이들을 쳐서 죽이라 했다. 두 각간이 명령을 받고 각각 군사 천 명씩을 거느리고 서교(西郊)로 가 보니, 부산(釜山) 밑에 과연 여근곡(女根谷)이라는 곳이 있고, 백제 군사 5백 명이 거기에 숨어 있었으므로, 이들을 모두 죽였다. 또 그 뒤에서 군사 1천 3백 명이 왔으나 또한 쳐서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셋째는, 왕이 아무런 병도 없을 때 여러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아무 해 아무 달 아무 날 죽을 것이니, 도리천(利天) 속에 장사지내라."

했다. 신하들은 어느 곳인지 알 수 없어 어디냐고 물으니, 왕은 말하기를,

"낭산(狼山) 남쪽이다."

했다. 그 날이 되어 왕이 과연 죽으므로 산하들은 낭산(狼山) 남쪽에 장사지냈다. 그 뒤 10여 년이 되어 문무(文武) 대왕(大王)이 사천왕사(四天王寺)를 왕의 무덤 아래에 세웠는데, 불경에 말하기를,

"사천왕사(四天王寺) 위에 도리천(利天)이 있다."

했으니, 이것으로 비로소 대왕(大王)의 신령스럽고 성(聖)스러움을 알 수 있었다.

삼국유사 권1, 선덕왕 지기 삼사조

#### ● 한풀이 문학과 주술(呪術)성

'지귀설화', 즉 '심화요탑'은 선덕여왕이 주문을 지어 불귀신의 원한을 달래어 물리치게 된 연유를 지닌 해원(解冤)기능의 설화문학이다. 한을 소재로 하는 전통은 우리 문학사에서 신라 시대를 비롯하여 고려와 조선조 시대를 거치면서 오늘에까지 이어져 왔으며, 여기에는 주술성을 동반한 풀이 기능이 곁들여져 나타나고 있다. 신라 향가의 '해성가', '도설가', '처용가', 등에 보인 풀이 기능은 '성조푸리, 바리데기' 등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 ● 심화요탑설화(心火繞塔說話)

선덕여왕을 사모하다가 죽어서 화귀(火鬼)가 된 지귀(志鬼)의 사랑을 그린 설화. 신이담(神異譚)에 속한다. 처음에 《수이전 殊異傳》에 수록되었으나, 《수이전》이 소실됨에 따라 권문해(權文海)의 《대동운부군옥》 권20에만 전하고 있다.

또, 《삼국유사》 권4 이해동진(二惠同塵)조에도 관련 설화가 일부 보이는데 단순한 영묘사(靈廟寺) 화재 사건에 관련된 기사에만 그치고 있어 설화의 전모는 알 수 없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신라시대에 지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선덕여왕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여 고민한 나머지 몸이 점점 여위어 갔다.

하루는 여왕이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갔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지귀를 불렀다. 지귀는 절간 탑 밑에서 여왕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다. 여왕이 돌아가는 길에 그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팔찌를 빼어 놓고 왕궁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깨어난 지귀는 팔찌를 발견하고 자신이 잠든 사이에 여왕이 다녀갔음을 알고 사모의 정이 더욱 불타올라 마침내 화귀로 변해 버렸다. 설화가 끝나는 부분에 왕이 술사(術士)에게 명하여 주사(呪詞)를 짓게 하였는데, 주사의 내용은 "지귀가 마음에 불이 나 몸을 태우고 화신이 되었네. 멀리 바다 밖에 내쫓아 가까이하지 않으리."였다.

그 당시 풍속에 이 주사를 문벽에 붙여 화재를 막았다는 설명이 덧붙여 있다. 이

**滿開(만개) : 풀이 학박 씨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설화는 그 배경이 신라로 되어 있고 선덕여왕이라는 실제 인물이 나오는 등 다분히 풍토화되어 있으나 그 근원은 불전설화에 두고 있다.

즉, 용수(龍樹)의 《대지도론 大智度論》 권14와 중국의 불교설화집인 석도세(釋道世)의 《법원주림 法苑珠林》 권21에 실려 있는 〈술파가설화 術波伽說話〉가 그것이다. 그 내용은, 어부 술파가가 왕녀의 미모에 반해 식음을 전폐하자 왕녀가 만나자고 한다.

천사(天祠)에서 왕녀를 기다리던 술파가가 잠이 들었는데 왕녀는 그에게 목걸이를 빼어 놓고 간다. 잠이 깨어 그 사실을 안 술파가는 몸에서 불이 나 타 죽고 만다는 것이다.

〈술파가설화〉는 다양한 사건, 긴 분량, 술파가 어머니와 왕녀 아버지의 등장, 천신의 구실 등 〈심화요탑설화〉보다 풍부한 내용과 합리적인 사건 진행을 보여 주고 있는데, 그것은 《대동운부군옥》이 백과사전적 문헌이기 때문에 수록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줄거리만 간추린 탓이며, 《수이전》에 수록되었을 본래의 설화는 훨씬 더 부연된 내용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수록 문헌의 성립 연대로 보아 〈심화요탑설화〉는 〈술파가설화〉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듯하다. 〈술파가설화〉가 수록되어 있는 《대지도론》이 이미 신라에 수입되어 경흥(景興)과 대현(大賢)의 저서에 인용되고 있으므로 불경의 대중화 과정에서 〈술파가설화〉가 민간에 유출되어 구전되었고, 그 동안에 신라적 배경과 내용, 인물로 변개되어 〈심화요탑설화〉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수이전》에 문헌설화로 수록되게 된 것이다.

두 설화는 이처럼 선후 영향 관계를 맺으면서 설화적 주지(主旨)의 수용에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근원설화가 되는 〈술파가설화〉는 여자가 이성적 판단을 못 하고 감정에 휘말려 음심(淫心)에 빠지는 것을 종교적 입장에서 경계하는 내용이다.

그러기에 왕녀와 술파가와 만남에 있어 천신이 술파가를 잠들게 함으로써 불가능하게 한 것이다. 〈심화요탑설화〉의 경우도 설화적 귀결은 그렇게 되어 있으나 종교적 의취가 탈색되면서 실제의 현실과 역사적 사실에 결부되어 다분히 풍토화되어 있다.

설화적 내용에서 선덕여왕의 미모와 신라 남성들의 자유분방한 애정 표현, 그리고 실제로 선덕여왕이 행차하던 영묘사와 그 절의 화재 사건은 역사적 사실과 일치된다. 또 설화의 끝 부분에 부가된 민속적 기사도 사실과 부합된다.

지귀가 타 죽어 화신(火神)이 되고 주사를 지어 문 벽에 붙임으로써 화재를 막았다는 것은 화신의 유래를 말하는 민속적 신앙의 표현이며, 주사는 주문(呪文)·주부(呪符) 등과 함께 민간 신앙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설화를 연기설화(緣起說話)·영험설화(靈驗說話)로 보기도 한다.

이 설화는 국내에서 유화(類話)가 없는 독특한 것으로 종교적인 불교설화가 신라 시대에 토착화하면서 당시의 역사적 사실과 결부되고, 이것이 다시 민간신앙에 연결되면서 민간설화로 토착된 것이다.

《참고문헌》 三國遺事, 大東韻府群玉, 大智度論, 法苑珠林, 新羅殊異傳小攷(崔康賢, 국어국문학 25·26, 국어국문학회, 1962·1963), 心火繞塔說話攷(印權煥, 국어국문학 41, 국어국문학회, 1968), 志鬼說話小考(黃湏江, 新羅佛教說話研究, 一志社, 1975).

## [ebs부교재] 용소와 며느리 하위

용소는 장연읍에서 한 이십 리 되는 거리에 있는데, 예 장연읍에서 그 서도 민요로 유명한 몽금포타령이 있는 데거든. 그 몽금포 가는 길 옆에 그 인지 바로 길 옆에 용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전설이 어떻게 됐나 할 거 같으면, 그렇게 옛날 옛적 얘기지.

옛날에 그 지금 용소 있는 자리가 장재 침지네 집터자리라 그래. 장재 침지네 집터자리인데, 거게서 그 영감이 인지 수천 석 하는 부자루 아주 잘 살구 인지 거기다 좋은 집을 짓구서 있었는데, 그 영감이 아주 깡쟁이가 돼서, 뭐 다른 사람 도무지 뭐 도와두 주지 않구, 돈만 모으던 그런 유명한 영감이래서 거기 사람들이 인지 말 하자면, ‘돼지, 돼지’ 하는 그런 영감이래네. 그래서 응 구걸하는 사람이 구걸을 와 두 당최 주질 않구, 또 대개 중들이 인지 그 시주를 하러 와두 도무지 주지를 않구, 그런 아주 소문이 나쁘게 나 있는 영감인데,

어느 여름철에 거기서 인지 그 용, 용소 있는 데서 한 이십 리 가면 불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불타산은 절이 많기 때문에 불타산이라는 그런 절이 있는데, 거게서 그 도승이, 그 영감이 아주 나쁘다는 소리를 듣구서, 우정 인지 그 집을 찾아가서 목탁을 치면서 시주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영감이 뛰어나가면설람

“이놈, 너이 중놈들이란 것은 불능불사하구, 땀기면서 얻어만 먹구 그러는데, 우리 집에 서는 절대루 인지 쌀 한 톨이라두 줄 수가 없으니까 가라구.”

소리를 질러두 그대루 그 중이 이제 가지를 앓구섬날 독경을 하구 있으니까, 이 영감이 성이 나서 지금은 대개 삼이라는 게 있지마는 옛날에는 저 그것을 뛰이라구 하나. 부, 부삼이라구 하나, 인지 그거 있는데 그걸루 두엄터미에섬날 쇠통을 퍼가 주구섬낭,

“우리 집에 쌀은 줄 거 없으니까 이거나 가져가라.

하구섬낭 바람에다가 쇠통을 열단 말야.

그래두 그 중은 조금두 낫색두 변하지 않구서, 거저 ‘나무아미타불’만 부르다가섬나를 그 쇠통을 걸머진 채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 마당 옆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가에서 그 장재 침지의 며느리가 인지 쌀을 씻구 있다가, 그 광경을 보구서 그 중 보구섬낭 얘기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천생이 고약해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조금두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구.”

그러면서 쌀, 씻든 쌀을 바가지에다 한 바가지 퍼섬낭, 그 바람에다 여 쫓단 말야.

그러니까 그 중이 며느리 보고 하는 말이,

“당신 감 집에 인지 조금 있다가 큰 재앙이 내릴 테니까, 당신 빨리 집으로 들어가서, 평소에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어 있는지, 두세 가지만 가지구서 빨리 나와섬낭, 저 불타산을 향해서 빨리 도망질하라구.”

그랬단 말야.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급히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방 안에 자기 아들을, 누워서 재우든 아이를 들쳐 업구, 또 그 여자가 인지 명지를 짜던 그 명지 도토마리를 끊어섬나를 이구 나오다가, 그 또 자기네 집에서 개를, 아주 오마 잘 거시기 하던 모냥이야. 귀엽게 기르던 개를 불러 가지구서 나와섬낭 그 불타산을 향해서 달음박질루 가는데, 명지 도토마리, 개, 어린애, 어린애를 업구 명주 도토마리를 이구, 개를 불러 가지구섬나를 인지 그 불타산을 향해서 얼마쯤 가는데, 그 때까지 아주 명랑하던 하늘이 가분자기 흐리면서 뇌성벽력을 하드니 말야.

근데 그 중이 먼저 무슨 주의를 시켰나면,

“당신, 가다가서 뒤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두 절대루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는 거를 인지 부탁을 했는데, 이 여인이 가는데 가분자기 뇌성벽력을 하면서 그 벼락 치는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래서 인지 뒤를 돌아봤단 말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만 화석이 돼서, 그 사람이 그만 화석이 되구 말았다는 게야. 개두 그렇게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화석이 돼서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데,  
 그 지금두 불타산 아래서 얼마 내려오다가서 그 비속하니 거기 사람들은 인지 이것이 으며느리가 화석된 게라고 인지 하는 바위가 있는데, 역시 인지 사람 모양하고, 뭐 머리에 뭐 인 거 같은 거 하구, 그 아래 개 모양 같은, 그런 화석이 상계두 있던 말야. 한테 그때 그 이 벼락을 치면서 장재 침지네 그 집이 전부 없어지면서 그만 거기에 뗏백 길이 되는지 모르는, 이제 큰 소가 댘단 말야.

한테 그 소가 어느만큼 넓으나 하면, 여기 어린이 놀이터보담두 더 넓은데, 이거 고만 두 배쯤 되는 품인데 그 소에서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물 나오는 소리가 쿵쿵쿵쿵쿵 하면서 그 곁에 가면 이제 지반이 울린단 말야. 이리이리 너무 물이 많이 나와서 그래 갖구, 그 물을 가지구서 에 오마 뗏만 석 인지 되는, 이제 말할 것 같으면 수천 정보에 그 인지 평야에, 눈에 물을 그 인지소에서 나오는 물 가지구서 대는데, 그 물은 아무리 비가 와두 느는 뺨이 없구, 에 아무리 가물어두 주는 뺨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깊으나 불라구 명지실을 갖다가, 돌을 넣어섬낭 하니까 명지실 뗏을 넣어도 도무지 끝을 몰른다는, 그만침 깊은 소가 댘단 말야.

- “고등학교 국어 (상)” (교육 과학 기술부, 2009)

### ▶ 핵심 정리

갈래	전설(채록)
성격	서사적, 인과적, 교훈적, 불교적, 비현실적, 전기적
특징	-사투리의 사용으로 현장감을 줌.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군소리를 사용하는 등 구어체적 특징이 강함.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충 설명을 덧붙임.
주제	인간의 탐욕과 경솔한 행동에 대한 경계

### ▶ 이해와 감상

이 글은 황해도 장연읍에서 내려오는 전설로, 악행을 일삼는 장재 침지와 선행을 베풀지만 금기를 어긴 며느리가 징벌을 받는다는 이야기이다. 장재 침지를 시험하러 온 도승의 바람에 쇠뿔을 넣은 장재 침지는 집터가 소(沼)가 되는 벌을 받게 된다. 며느리는 장재 침지와 달리 쌀을 시주하고 도승에게서 재앙을 피할 방법을 듣지만 금기를 어겨 결국 돌로 변하고 만다. 전설은 구체적인 증거물을 갖게 마련인데, 아직도 황해도 장연읍에는 이 글의 소재인 용소와 며느리 바위가 남아 있다고 한다. 용소와 며느리 바위는 이 글의 제목이자 전설의 증거물로 이 이야기에 신빙성을 더해 주는 소재라고 말할 수 있다.

# [ebs부교재] 장자 못 설화

## 장자못 설화



인색한 부자가 종에게 쇠똥을 주었다가 벌을 받았다는 내용의 설화. 증거물을 동반한 지명설화로 흔히 장자의 악행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몰래 시주한 며느리가 종이 제시한 금기를 어겨 바위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함께 붙어 있다. 이 설화는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며 가장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지명전설의 하나이다.

현재 장자못이 있다고 확인된 곳만 하여도 강원도 태백시의 황지못을 비롯하여 백여 군데가 된다. 풍부한 구전설화에 비하여 문헌자료는 거의 없는 편으로 <<조선읍지>>에 구전 자료를 기록한 두 편이 있을 뿐이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옛날에 아주 인색하고 포악한 부자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종이 와서 동냥을 달라고 하자, 장자는 외양간을 치고 있다가 쌀 대신 쇠똥을 바랑에 넣어 주었는데 종은 그냥 받아갔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장자의 며느리가 몰래 쌀을 퍼다가 바랑에 담아 주었다. 그러자 종이 “당신이 살려면 지금 나를 따라오되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는 금기를 주었다.

며느리는 집을 떠나(혹은 기르던 개를 데리고, 아기를 업고, 벼를 이고) 산을 오르는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참고 돌아보지 않았으나 갑자기 커다란 소리가 들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보았다. 며느리는 자기가 살던 집이 못이 되었으므로 놀라 그 자리에서 돌이 되었다. 지금도 그 부자의 집터가 변한 못과 바위가 남아 있다.

이 설화에서 종은 도승, 또는 거지로 변이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며느리는 딸·아내·하녀로 변이되기도 한다. 결구에서 며느리바위는 미륵바위·벼락바위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장자의 집이 못이 될 때에 장자는 구렁이로 변해서 그 못에서 살고 있다는 변이형도 있다. 이 설화는 크게 부자가 종을 학대한 벌로 집이 함몰하였다는 장자못 부분과, 며느리가 금기를 어겨 돌이 되었다는 화석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증거물에 따라 때때로 어느 한 부분만이 따로 이야기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대체로 앞의 장자못에 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타난다. 이 설화의 앞부분인 인색한 부자의 악행과 그에 대한 징벌로서의 패망은 몇 가지 유사한 설화 유형으로 변이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인색한 부자가 지나가는 종을 학대하였더니, 그 종이 부자에게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속이고는 현재 발복(發福)의 근원인 명당의 혈(穴)을 자르게 하였다. 탐욕스러운 부자는 욕심이 나서 그대로 하였다가 망해 버렸다는 이야기는 징벌의 수단으로 풍수리지설을 이용한다. 유사한 설화로는 자기 집 종을 학대하자 종의 자식이 집을 나가 풍수지리를 공부하고 돌아와서 주인집의 명당혈(明堂穴)을 자르게 하여 망하게 하였다는 유형도 있다.

이러한 변이형은 악행을 저지른 부자의 탐욕을 역이용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악행에 대한 응징이라는 주제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하여 장자못설화는 단순한 악행응징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등장하고 있는 세

명의 인물들은 각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종은 초자연적인 세계의 절대선적(絶對善的)인 질서를 대변하는 존재이고, 장자는 세속적인 본능적 욕망의 표상이며, 며느리는 초월적 질서와 본능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다.  
이러한 해석은 장자못설화가 권선징악적 교훈 이상의 인간의 존재 양상에 대한 철학적 인식을 담은 설화임을 말해 준다.

이 설화는 구약성서의 '소돔과 고모라'와도 비교된다. 두 이야기는 문화적·종교적 배경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하여 설화의 세계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

이 설화는 광범위하게 전승되므로 향유층의 의식을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뿐 아니라, 폭넓은 분포와 전승 과정에서 파생된 변이는 설화 변이의 연구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또한 고대소설 〈옹고집전〉이 형성되게 한 근원설화이며, 현대소설 〈인간문제〉와 〈돌〉의 소재가 됨으로써 설화의 소설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참고문헌》 朝鮮邑誌, 雍固執傳, 韓國說話文學研究(張德順, 서울大學校出版部, 1970), 嶺南의 傳說(柳增善, 螢雪出版社, 1971), 口碑文學概說(張德順·趙東一·徐大錫·曹喜雄, 一潮閣, 1971), 韓國口碑傳說的 研究(崔來沃, 一潮閣, 1981), 韓國口碑文學大系(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1988), 人間問題(姜敬愛, 東亞日報, 1934.1.), 돌(韓戊淑, 文學藝術, 1955.12.), 說話와 그 小說化過程에 대한 構造的 分析(崔來沃, 國文學研究 7, 서울大學校大學院國文學研究會, 1968).

# [ebs부교채] 정석가

정석가(鄭石歌)

딩아 돌하 당금(當今)에 계상이다.  
딩아 돌하 당금(當今)에 계상이다.  
선왕성덕(先王聖代)예 노니와와지이다.

삭삭기 세몰애 별헤 나논  
삭삭기 세몰애 별헤 나논  
구은 밤 닷 되를 심고이다.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유덕(有德)호신 님를 여희와와지이다.

옥(玉)으로 련(蓮)스고즐 사교이다.  
옥(玉)으로 련(蓮)스고즐 사교이다.  
바희 우희 접두(接柱)호요이다.  
그 고지 삼동(三同)이 뛰거시아  
그 고지 삼동(三同)이 뛰거시아  
유덕(有德)호신 님 여희와와지이다.

므쇠로 털릭을 몰아 나논  
므쇠로 털릭을 몰아 나논  
털스(鐵絲)로 주롬 바고이다.  
그 오시 다 헐어시아  
그 오시 다 헐어시아  
유덕(有德)호신 님 여희와와지이다.

므쇠로 한쇼를 디여다가  
므쇠로 한쇼를 디여다가  
털슈산(鐵樹山)애 노호이다.  
그 쇠 털초(鐵草)를 머거아  
그 쇠 털초(鐵草)를 머거아  
유덕(有德)호신 님 여희와와지이다.

구스리 바회예 디신들  
구스리 바회예 디신들  
긴히든 그츠리잇가  
즈문 희불 외오곰 녀신들  
즈문 희불 외오곰 녀신들  
신(信)잇든 그츠리잇가.

징(鄭,鉦)이여 돌(石)이여 지금에 계시웁니다  
징이여 돌이여 지금에 계시웁니다  
이 좋은 성대에 놓고 싶사웁니다.

사각사각 가는 모래 벼랑에  
구운 밥 닳 되를 심으오이다.  
그 밤이 움이 돋아 싹이 나아만  
그 밤이 움이 돋아 싹이 나아만  
유덕하신 님 여의고 싶습니다

옥으로 연꽃을 새기웁니다  
옥으로 연꽃을 새기웁니다  
바위 위에 접을 붙이웁니다  
그 꽃이 세 묶음(혹은 한 거울에) 피어야만  
그 꽃이 세 묶음 피어야만  
유덕하신 님 여의고 싶습니다

무쇠로 철릭을 마름질해  
무쇠로 철릭을 마름질해  
철사로 주름 박습니다  
그 옷이 다 헐어야만  
그 옷이 다 헐어야만  
유덕하신 님 여의고 싶습니다

무쇠로 황소를 만들어다가  
무쇠로 황소를 만들어다가  
쇠나무산에 놓습니다  
그 소가 쇠풀을 먹어야  
그 소가 쇠풀을 먹어야  
유덕하신 님 여의고 싶습니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 년을 외따로이 살아간들  
천 년을 외따로이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 ◆ 요점 정리

- 작자 : 미상(未詳)
  - 연대 : 고려 때로 추정
  - 갈래 : 고려 가요. 고려 속요. 장가(長歌), 전 6연. 1연은 3구, 2-6연은 6구, 3음보
  - 형식 : 전 6연의 분연체, 1연은 3구, 2~6연은 6구, 3음보. 3 3 4조
  - 성격 : 서정적, 민요적
  - 구성 : 서사 - 본사 - 결사의 3단 구성
- 1연 : 기 : 태평성대를 갈구함  
2연 -5연 : 서 : 불가능한 상황 설정으로 영원한 사랑을 갈구함  
6연 : 결 : 입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과 믿음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이 노래는 태평성대의 구가로 서사를 삼고, 2연부터 5연까지 입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소망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한편 이 노래의 6연은 2-5연과 그 표현 방법이 다른데, 전반부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후반부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입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신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고려 속요인 서경별곡의 2연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 노래가 궁중에서 불리게 되었을 때 첨가된 것으로 추측된다.]

- 표현 : 반복법(운율을 형성하며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과장법. 역설법. 반어법을 사용하여,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설정해 놓고 영원한 사랑을 역설적으로 노래했고, 한 연에 똑같이 되풀이 되는 2구가 있어 감정을 강조하고 있으며, 소망형인 어미로 끝내면서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느끼게 하고 있다

- 제재 : 입에 대한 사랑

- 주제 : 입에 대한 영원한 사랑, 입에의 영원한 연모의 정, 태평 성대(太平聖代)의 기원)

- 의의 : 대부분의 고려 가요가 이별이나 애원 또는 향락의 정서를 읊고 있는 데 반해 영원한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고, 완곡한 방법으로 시상(詩想)을 표현한 점은 색다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통해 사랑의 절실함을 표현하고 있다.

- 출전 : <악장가사> <악학편고> <시용향악보>

◆ 내용 연구

이 작품에 등장하는 입은 '입금'과 '연인'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입금으로 볼 경우 이 노래는 태평성대를 바라는 백성들이 입금에게 바치는 축수의 송축가가 되며, 연인으로 볼 경우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백년해로를 기원하는 연정가가 된다.

덩아 돌하 당금(當今)에 계상이다 덩하 돌하 당금에 계상이다 선황성덕에 노니오와지이다 징(鄭,鉦)이여 돌(石)이여 지금 계시웁니다 징이여 돌이여 지금에 계시웁니다 태평 성대에 노닐고 싶습니다	태평성대를 희구함	서사(기)
삭삭기 썩물애 별헤 나눈 삭삭기 썩물애 별헤 나눈 구운 밤 닷 되를 심고이다 그 밤이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그 밤이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유덕(有德)헌신 님물 여히오와지이다 사각사각 가는 모래 벼랑에 사각사각 가는 모래 벼랑에 구운 밤 닷 되를 심습니다 그 밤이 움이 돌아 삭이 나아만 그 밤이 움이 돌아 삭이 나아만 유덕하신 님과 여의고 싶습니다	입과의 영원한 사랑 모래밭에서 구운 밤 을 심어 움이 나면 헤어지고 싶음	본사(서)
옥(玉)으로 련(蓮)사 고줄 사교이다 옥(玉)으로 련(蓮)사 고줄 사교이다 바회 우회 접류(接柱)호요이다 그 고지 삼동(三冬)이 뛰거시아 그 고지 삼동(三冬)이 뛰거시아 유덕(有德)헌신 님물 여히오와지이다	영원한 사랑 바위에 세 뉘음의 연 꽃이 필 때 이별하고 자함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p>옥으로 연꽃을 새기웁니다  옥으로 연꽃을 새기웁니다  바위 위에 접을 붙이웁니다  그 꽃이 세 묶음(혹은 한 거울에) 피어야만  그 꽃이 세 묶음 피어야만  유덕하신 님과 여의고 싶습니다</p>		
<p>무쇠로 철릭을 몰아 나눈  무쇠로 철릭을 몰아 나눈  털스(鐵絲)로 주름 바고이다  그 오시 다 헐어시아  그 오시 다 헐어시아  유덕(有德)하신 님을 여의으와지이다</p> <p>무쇠로 철릭(무관의 제복)을 마름질해  무쇠로 철릭을 마름질해  철사로 주름 박습니다  그 옷이 다 헐어야만  그 옷이 다 헐어야만  유덕하신 님과 여의고 싶습니다</p>	<p>영원한 사랑  털릭과 철사로 주름  박은 옷이 헐어질 때  에 임과 이별하고자  함.</p>	
<p>무쇠로 한소를 디어다가  무쇠로 한소를 디어다가  털슈산(鐵樹山)에 노호이다  그 소   털초(鐵草)를 머거사  그 소   털초(鐵草)를 머거사  유덕(有德)하신 님을 여의으와지이다</p> <p>무쇠로 큰소를 만들어다가(지어다가)  무쇠로 큰소를 만들어다가(지어다가)  쇠나무산에 놓습니다  그 소가 쇠풀을 먹어야  그 소가 쇠풀을 먹어야  유덕하신 님과 여의고 싶습니다</p>	<p>영원한 사랑  무쇠로 만든 황  소가 철초를 먹  을 때 헤어지고  싶음</p>	
<p>구스리 바회예 디신들  구스리 바회예 디신들  긴헛든 그츠리잇가  즈문 히룰 외오곰 녀신들  즈문 히룰 외오곰 녀신들  신(信)잇든 그츠리잇가</p> <p>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 년을 외따로이 살아간들  천 년을 외따로이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p>	<p>영원한 신의  구슬이 깨어져도  믿음은 끊어지지  않음  (주제연)</p>	<p>결사  (결)</p>

'딩아 돌하'의 '딩, 돌'은 '鄧石'의 차자(借字)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딩'과 '돌'은 약기의 이름으로 '정석'은 그 약기를 의인화한 것이다. 그러나 노래의 주인공이 연모하는 인물이 이름이 '정석'이라고 보는 다른 설도 있다.

# [ebs부교재] 동동

동동(動動)



德(덕)이란 곰뱀에 받치고, 福(복)이란 림뱀에 받치고,  
德이여 福이라 호놀 나스라 오소이다.  
아으 動動(동동)다리.

正月(정월)스 나릿므른 아으 어저 녹저 호논더.  
누릿 가온더 나곤 몸하 호올로 녀셔.  
아으 動動다리.

二月(이월)스 보로매, 아으 노피 현 燈(등)스불 다호라.  
萬人(만인) 비취실 즈씨샷다.  
아으 動動다리.

三月(삼월) 나며 開(개)호 아으 滿春(만춘) 들윗고지여.  
느리 브를 즈술 디더 나샷다.  
아으 動動다리.

四月(사월) 아니 니저 아으 오실셔 곳고리새여.  
므슴다 錄事(녹사)니든 넷 나롤 닛고신더.  
아으 動動다리.

五月(오월) 五日(오일)애, 아으 수릿날 아춤 藥(약)은  
즈른 힐 長存(장존)호살 藥이라 받춤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六月(유월)스 보로매 아으 별해 베훈 빗 다호라.  
도라보실 니를 격곰 좇니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七月(칠월)스 보로매 아으 百種(백종) 排(배)호야 두고,  
니를 호 더 녀가져 願(원)을 비습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八月(팔월)스 보로든 아으 嘉排(가배) 나라마븐,  
니를 뵈셔 녀곤 오늘날 嘉排샷다.  
아으 動動다리.

九月(구월) 九日(구일)애 아으 藥이라 먹논 黃花(황화)  
고지 안해 드니 새셔 가만호야라.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아으 動動다리.

十月(시월)애 아으 저미연 보뵈 다호라.  
것거 보리신 後(후)에 디니실 혼 부니 업스샏다.  
아으 動動다리.

十一月(십일월)스 봉당 자리에 아으 汗衫(한삼) 두퍼 누워  
슬 흘스라온더 고우닐 스셔옴 녀셔.  
아으 動動다리.

十二月(십이월)스 분디남 7로 갓곤 아으 나술 盤(반)잇 저 다호라.  
니피 알피 드러 열이노니 소니 가재다 므트습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덕은 뒤에(뒷 잔에, 신령님께) 바치옴고, 복은 앞에(앞 잔에, 임에게) 바치오니,  
덕이며 복이라 하는 것을 진상하러 오십시오.

정월 냇물은 아아, 얼려 녹으려 하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이 몸이여, 홀로 살아가는구나.

2월 보름에 아아, 높이 켜 놓은 등불 같구나.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시도다.

3월 지나며 핀 아아, 늦봄의 진달래꽃이여.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태어나셨구나.

4월을 잊지 않고 아아, 오는구나 꾀꼬리새여.  
무엇 때문에(어찌하여)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계시는구나.

5월 5일(단오)에, 아아 단옷날 아침 약은  
천 년을 사실 약이기에 바치옵니다

6월 보름(유두일)에 아아, 벼랑에 버린 빗같구나.  
돌아보실 임을 잠시나마 따르겠나이다.

7월 보름(백중)에 아아, 여러 가지 제물을 벌여 놓고  
임과 함께 살고자 소원을 비웁니다.

8월 보름(가위)은 아아, 한가윗날이지마는,  
임을 모시고 지내야만 오늘이 뜻 있는 한가윗날입니다.

9월 9일(중양절)에 아아, 약이라고 먹는  
노란 국화꽃이 집 안에 피니 초가집이 고요하구나.

10월에 아아, 잘게 썰은 보리수나무 같구나.  
꺾어 버리신 후에 (나무를) 지니실 한 분이 없으시도다.

11월에 봉당 자리에 아아, 흘적삼을 덮고 누워  
임을 그리며 살아가는 나는 너무나 슬프구나  
(슬픔보다 더하구나. 사랑하는 임과 갈라져 제각기 살아가는구나).

12월에 분지나무로 깎은 아아, (임께 드릴) 소반 위의 젓가락 같구나.  
임의 앞에 들어 가지런히 놓으니 손님이 가져다가 뭍니다.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요점 정리**

- 작가 : 미상
- 연대 : 고려시대
- 형식 : 고려 속요
- 형태 : 전 13연, 달거리(월령체 : 한 해 열두 달의 순서에 따라 노래한 시가의 형식)
- 구성 : 달에 따라 구성으로 서사 1연과 본사 2연~ 13연

1연	서사	임에 대한 송축
2연	1월령	자신의 외로운 처지(나릿물)
3연	2월령	임의 빼어난 모습 찬양(등산불)
4연	3월령	임의 아름다운 모습 찬양(달빛곳 = 진달래꽃)
5연	4월령	자신을 찾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꽃고리)
6연	5월령	임의 장수에 대한 기원(단오 : 아침약)
7연	6월령	임에게 버림받은 처지 비관(유두절 : 빗)
8연	7월령	임을 따르고자 하는 염원(백종)
9연	8월령	임없는 한가위의 쓸쓸함(한가위)
10연	9월령	임의 부재로 인한 고독(중양절 : 황화)
11연	10월령	버림받은 사랑에 대한 회한(바랏 = 보리수나무)
12연	11월령	임없이 살아가는 슬픔 - 독수공방의 외로움(한삼)
13연	12월령	임과 맺어지지 못하는 인연의 기구함(저 = 나무젓가락)

- 시적 화자를 비유한 표현으로 6월령의 별해 버린 빗과 10월령의 저미연 바랏은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신세를 형상화한 것이고, 12월령의 반잇 저는 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택받은 자신의 신세를 형상화함
- 표현 : 영탄법, 직유법, 은유법
- 성격 : 상징적, 비유적, 서정적, 민요적, 송축적, 월령체, 이별의 노래, 민요풍, 송도가
- 내용 :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남녀의 이별의 정한과 임을 그리는 한 여인의 그리움을 노래하였다.
- 제재 : 달마다 행하는 민속
- 주제 : 송축과 고독의 비애 또는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각 연마다 주제가 다르다)
- 의의 : 고려 가요 중에서 유일한 우리 문학 최초의 달거리 노래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월령체이다.
- 특징 : 영탄법, 직유법, 은유법을 사용하고, 여음구 '동동'은 북소리의 의성어이고, '다리'는 ○악기 소리의 의성어를 나타내고, 세시 풍속에 따라 사랑의 감정을 읊고, 임에 대한 송축과 연모의 정이 어우러짐
- 참고 : 고려와 조선을 통하여 궁중에서 연주되었고, 나례(궁중에서 악귀를 쫓기 위해 베풀던 의식) 뒤에도 처용지희 속에 동동무가 있었으나, 종종 때에 와서 남녀상열지사라 하여 정음사와 함께 폐지되었다.

◆ **내용 연구**

德(덕)이란 곰비에 받좁고, 福(복)이란 림비에 받좁고,  
 德이여 福이라 호놀 나스라 오소이다.  
 아으 動動(동동)다리.

덕일량은 뒷 잔(신령님께)에 바치웁고  
 복일량은 앞 잔(임금님께)에 바치웁고

덕이여 복이라 하는 것을  
드리러(진상하러) 오십시오  
아으 동동다리

덕은 뒤에(뒷 잔에, 신령님께) 바치웁고,  
복은 앞에(앞 잔에, 임에게) 바치오니,  
덕이여 복이라 하는 것을 진상하러 오십시오.(드리러 오십시오)

덕으란 : 덕은, 덕을랑. 랑>란은 향가표기의 '良'에 해당  
곰빔예 : 뒤에, 뒷잔(後杯)에, 다음 잔 등으로 해석  
(박병채는 '곰'을 '신성하다'의 어원을 가진  
'검, 곰, 금' 등과 동일시하여 '신령', '임'으로 보기도 함.  
받줍고 : 바치웁고(獻), 드리웁고  
림빔예 : 앞에, 앞잔(前杯)에, '곰 림'로 결합되어 '계속하여'의 뜻임.  
호놀 : 하는 것을, 한 것을.  
나스라 : 드리러, 진상(眞上)하러, 기본형 : 낫다.  
오소이다 : 왔습니다.  
動動다리 : '동동'은 북 소리, '다리'는 악기 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

'고려사 악지'에서 '다유송도지사(多有頌禱之詞 : 경사스러움을 찬양하고 축복하는  
송도의 노래)'라고 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에의 송도(頌禱)이다. 이 때의 임은  
'임금'과 같은 공적인 임이라는 의미가 짙다.

주제 : 송도(頌禱) - 덕과 복을 빚

正月(정월)스 나릿므른 아으 어저 녹저 호논더,  
누릿 가온더 나곤 몸하 호올로 널셔,  
아으 動動다리,

정월의 넷물은  
아! 얼었다 녹았다 정다운데  
누리(세상) 가운데 나고는  
이 몸은 홀로 지내누나  
아으 동동다리

정월 넷물은 아아, 열려 녹으려 하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이 몸이여, 홀로 살아가는구나.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정월(正月)人 : 정월의  
나릿므른 : 시냇물은, 냇물은.  
어저 녹저 : 얼려 하고 녹으려 하고  
흐논더 : 하는데.  
누릿 : 세상의.  
가문더 : 가운데.  
나곤 : 나매, 나서는, 나고는. '곤'은 '하니, 하매, 하거늘'을 나타내는  
구속형어미  
몸하 : 몸이여. '하'는 존칭 호격 조사.  
홀로로 : 홀로. 혼자.  
넬셔 : 살아가는구나. 지내는구나.

정월령으로 생의 고독과 임에의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정월의 냇물이 얼려 녹으려 한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임으로 하여금 녹게 하고 싶다는 의미와 정을 녹여 줄 사람도 없이 홀로 살아가는 의미를 가진 중의적 또는 우의적 표현이다.

주제 : 고독(孤獨) - 생의 고독과 아련한 그리움 또는 연모와 애끓는 외로움

二月(이월)人 보로매, 아으 노피 현 燈(등)人 불 다호라,  
萬人(만인) 비취실 즈식샷다.  
아으 動動다리.

이월 보름에  
아! (내 남은) 높이 켜 등불 같아라  
만인 비취실 모습이로다  
아으 동동다리

2월 보름에 아아, 높이 켜 놓은 등불 같구나.  
만인을 비취실 모습이시도다.

보로매 : 보름에. 보름> 보름(이화현상)  
현 : 켜. 기본형 : 혀다.  
다호라 : 답구나. 다와라.  
즈식샷다 : 모습이시도다. 같구나.

2월 연등절(燃燈節)에 높이 켜 놓은 등불에서 서정적 자아는 만인이 우러러볼 만한 임의 모습을 발견한다.

주제 : 송축(頌祝) - 임의 인품 찬양

三月(삼월) 나며 開(개)흔 아으 滿春(만춘) 돌윗고지여,  
늑떡 브를 즈슬 디더 나샷다.  
아으 動動다리.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삼월 나면서 핀 아! 늦봄 진달래꽃(혹은 오얏꽃으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음)이여  
남이 부러워할 자태를 지니고 나셨도다  
아으 동동다리

3월 지나며 핀 아아, 늦봄의 진달래꽃이여.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태어나  
셨구나.

나며 : 지나며, 되며,  
만춘(滿春) : 늦봄,  
돌윗고지여 : 진달래꽃이여,  
브름 : 부러워할,  
즈술 : 얼굴을, 모습을  
디녀 : 지니어,  
나샷다 : 나시도다.

꽃 피는 3월, 거기에도 아름다운 임의 모습은 있다. 늦봄에 핀 진달래꽃에서 임의  
모습을 조영(照影)해 보는 것이다.

주제 : 송축(頌祝) - 임의 아름다움을 찬양

四月(사월) 아니 니저 아으 오실셔 꾀꼬리새여,  
므슴다 錄事(녹사)니문 넷 나를 닛고신더,  
아으 動動다리.

사월 아니 잇고  
아! 오셨네 꾀꼬리여  
무슨 일로 녹사님은 옛날을 잇고 계신가  
아으 동동다리

4월을 잇지 않고 아아, 오는구나 꾀꼬리새여.  
무엇 때문에(어찌하여) 녹사님은 옛날을 잇고 계시는구나.

오실셔 : 오시는구나, 오는구나  
꾀꼬리새여 : 꾀꼬리새여, 여는 감탄형어미  
므슴다 : 무슨 까닭으로, 무엇 때문에,  
녹사(錄事)니문 : 녹사님은, '녹사'는 고려 때 벼슬 이름,  
닛고신더 : 잇고 계시는구나.

꾀꼬리는 잇지 않고 찾아왔지만, 녹사(綠事)님은 옛날의 나를 잇었는가. 상사(想  
思)에 몸부림치는 여인의 입에 대한 원망과 한탄이 서려 있는 연이다. 대조적 표  
현

주제 : 애련(哀戀) - 무심한 입에 대한 애끓는 정

五月(오월) 五日(오일)애, 아으 수릿날 아츰 藥(약)은  
즈믄 힐 長存(장존)호살 藥이라 받좁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오월 오일에

아! 수릿날 아침 약은

천 년을 길이 사실 약이라고 받치웁니다

아으 동동다리

5월 5일(단오)에, 아아 단옷날 아침 약은

천 년을 사실 약이기에 받치웁니다.

수릿날 : 단오날. 신라 때부터 음력 5월5일을 수리(戌衣)라 일컬었음.

즈믄 : 천 년을.

장존(長存) : 오래 사실.

받잡노이다 : 받치웁나이다.

이 수릿날(단오) 아침에 먹는 약은 천 년을 장수하는 약이라 한다. 그러나 임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혼자 임의 모습을 그리며, 약을 받들어 드릴 뿐이다.

주제 : 기원(祈願) - 임의 만수무강을 빕

六月(유월)스 보로매 아으 별해 벼른 빗 다호라.

도라보실 니를 적곰 좃니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유월 보름에

아! 벼랑가에 버린 빗 같구나

돌아보실 님을 잠시나마 따르겠습니다.

아으 동동다리

6월 보름(유두일)에 아아, 벼랑에 버린 빗같구나.

돌아보실 임을 잠시나마 따르겠나이다.

별해 : 벼랑에.

벼른 : 버린.

적곰 : 조금. 잠시나마, 잠깐이나마

좃니노이다 : 좃아갑니다.

주제 : 애련(哀戀) - 버림받은 신세를 참고 견딤

七月(칠월)스 보로매 아으 百種(백종) 排(배)하야 두고,

니를 훈 더 녀가져 願(원)을 비습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칠월 보름에 아! 갖가지 제물 벌여 두고

님과 함께 지내고자 소원을 비웁니다

아으 동동다리

7월 보름(백중)에 아아, 여러 가지 제물을 벌여 놓고

임과 함께 살고자 소원을 비웁니다.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排(배) 야 : 벌여, 차려.

녀가져 : 살아가고자.

비습노이다 : 비습나이다. 비습니다.

7월 보름 백중날, 온갖 음식과 과일을 차려 놓고 기원을 올릴 적에, 임과 함께 살아보겠다는 애절한 소망을 기도했음을 노래한 것이다.

주제 : 연모(戀慕) - 임을 영원히 따르고 싶어 하는 염원

八月(팔월)스 보로든 아으 嘉排(가배) 나라마론,

니를 뵈셔 녀곤 오늘날 嘉排샷다.

아으 動動다리.

팔월 보름은

아! 한가윗날이건마는

님을 모시고 지내야만 오늘이 뜻있는 한가윗날입니다.

아으 동동다리

8월 보름(가위)은 아아, 한가윗날이지마는,

임을 모시고 지내야만 오늘이 뜻 있는 한가윗날입니다.

嘉排(가배)나리마 : 추석날이지마는.

뵈셔 녀곤 : 모시어 지내야만.

오늘났 : 오늘날이.

8월 보름은 한가위라 하여 땀 흘려 가꾼 곡식과 풍성한 과일을 조상에게 천신(薦新)하는 때로 일 년 중 가장 즐거운 명절의 하나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임이 있어 야만 진정한 한가위다운 날이 되련만, 홀로 임을 그리는 고독과 그리움만이 있다는 노래이다.

주제 : 연모(戀慕) - 임 없이 쓸쓸하게 맞이하는 한가위

九月(구월) 九日(구일)애 아으 藥이라 먹논 黃花(황화)

고지 안해 드니 새셔 가만 흥애라.

아으 動動다리.

구월 구일에

아! 약이라 먹는 노란 국화꽃이

집 안에 피니 초가집이 고요하구나.

아으 동동다리

9월 9일(중양절)에 아아, 약이라고 먹는 노란 국화꽃이

집 안에 피니 초가집이 고요하구나.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黃花(황하) : 노란 국화.

안해 : (집)안에.

새서 가만하애라 : 초가(草家)가 조용하구나

. [‘새’는 茅(띠 모), ‘서’는 연(서까래 연)으로 보아 ‘서연’, 즉 ,띠집(초가집)이며,

‘가만 애라’는 ‘고요하구나, 한적하구나’의 뜻.]

9월은 중앙절이 있는 달이다. 중앙절에는 황화전(黃花煎)을 해 먹는 풍습이 있다. 황화전의 재료인 국화꽃이 집 안 가득 피어 나니, 임이 안 계시는 초가가 더욱 적막하게 느껴진다. 적막한 가운데 고독과 한을 간직한 노래이다.

주제 : 적요(寂寥) - 사랑에 버림 받고 물러나는 쓸쓸함

十月(시월)애 아으 저미연 ㅂㅂ 다호라.

것거 ㅂ리신 後(후)에 디니실 훈 부니 업스샷다.

아으 動動다리.

시월에

아! 잘게 썰은 보리수나무 같구나

꺾어 버린 뒤에 (나무를) 지니실 한 분이 없으시도다

아으 동동다리

10월에 아아, 잘게 썰은 보리수나무 같구나.

꺾어 버리신 후에 (나무를) 지니실 한 분이 없으시도다.

저미연 : 저민. 잘게 썬.

ㅂㅂ다호라 : 보리수나무 같구나.

ㅂ리신 : 버리신. 기본형 : 리다.

훈부니 : 한 분이. 한 사람이.

10월에 산에는 보리수가 열린다. 그 붉은 열매를 따먹은 위에는 누구든 다시 처다 볼 사람이 없다. 버림받은 가련한 신세, 체념과 애상(哀傷)이 한데 엉킨 애련(哀戀)을 노래하고 있다.

주제 : 애련(哀戀) - 버림받은 사랑에 대한 회한과 고독

十一月(십일월)ㅅ 봉당 자리에 아으 汗衫(한삼) 두퍼 누워

슬흘스라온더 고우닐 스식욘 녀셔.

아으 動動다리.

십일월 봉당 자리(흙바닥)에 아! 흘적삼 덮고 누워

임을 그리며 살아가는 나는 너무나 슬프구나

아으 동동다리

11월에 봉당 자리에 아아, 흘적삼을 덮고 누워

임을 그리며 살아가는 나는 너무나 슬프구나

(슬픔보다 더하구나. 사랑하는 임과 갈라져 제각기 살아가는구나).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봉 : 안방과 건넌방 사이의 토방. 안방과 건넌방 사이에 있는 마루를 놓을 자리에 있는 땅바닥.

汗衫(한삼) : 속적삼.

두퍼 : 덮어

슬홀스라몬더 : 슬픈 일이구나. 가련한 일이구나. 슬프기가 더하구나.

고우닐 : 고운 사람을. 사랑하는 임을, 애인을

스식욘 : 스스로, 제각기.

11월 추운 겨울 밤, 맨 바닥인 봉당 자리에 홀적삼 하나를 덮고 누워 생각하니 임 생각에 저절로 눈물이 앞을 가리고, 홀로 살아가는 자신의 신세가 참으로 기가 막히다는 비애를 그리고 있다.

주제 : 비련(悲戀) - 독수공방의 외로움

十二月(십이월)스 분디남꺾로 갓곤 아으 나술 盤(반)잇 저 다호라.  
니픽 알픽 드러 얼이노니 소니 가져다 므락숄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십이월 분지나무로 깎은 아! 차려 올릴 소반의 젓가락 같구나.

님 앞에 들어 가지런히 놓으니 손님이 가져다 입에 뭍니다

아으 동동다리

12월에 분지나무로 깎은 아아, (임께 드릴) 소반 위의 젓가락 같구나.

임의 앞에 들어 가지런히 놓으니 손님이 가져다가 뭍니다.

분디남꺾 로 : 분지나무로, 산초나무로(분지나무는 야산에 자생하며 여름에 담록색꽃이 피고, 겨울에 열매가 익는 나무다.  
고려 때는 분지나무를 깎아 저를 만들던 풍속이 있었다한다.

갓곤 : 깎은.

나술 : 나아갈. 진상할. 차려 올릴

盤(반)잇 : 쟁반에 있는.

저 다호라 : 저(著)같구나.

알픽 : 앞에.

얼이노니 : 합치노니. 가지런히 놓으니. '얼다'는 '결혼하다'의 뜻도 있음.

소니 : 손님이. '손'은 '손님'의 뜻

므락숄 노이다 : 무릅나이다. 무릅니다.

귀한 손님 같으신 임께 올릴 진짚상을 차려, 임께서 쓰시라고 가지런히 젓가락을 올렸더니, 생각지도 않은 다른 사람이 가져다 써 버렸다는 것이다. 이루지 못할 사랑, 뜻하지 않은 사람에게 시집가게 된 비련(悲戀)의 주인공인 나의 신세를 노래한 마지막 연이다.

주제 : 애련(哀戀) - 헤어져 살아야 하는 기구한 운명

#### ◆ 이해와 감상

이 노래는 분절체 형식과 후렴구 사용 등에서 고려 가요의 형식을 그대로 지니고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있으나, 월령체(月令體)라는 점이 이색적이다. 남녀의 이별을 제재로 하여, 계절의 변화에 따라 새로워지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애절하게 노래하고 있다. 전체에 일관되게 흐르는 내용은 축도(祝禱)와 사랑이지만, 12개월의 특성에 맞추어 송축과 찬양, 떠나버린 임에 대한 원망과 한스러움, 그리움 등을 표현하고 있어서 한 여인의 슬픈 마음을 체험케 하고 있다. 전체를 일관하고 있는 것은 송도와 연모이지만, 이 노래에는 송축과 찬양이 있는가 하면 원망과 한이 있고, 고독의 몸부림이 있는가 하면 애절한 상사가 있고, 체념과 자조가 있는가 하면 해행(함께 감)에 의 간절한 기원이 있어 가히 사랑의 일대 파노라마요, 여인 애사의 축도를 보는 듯한 감이 있다.

### 이해와 감상1

이 노래는 분절체 형식과 후렴구 사용 등에서 고려 가요의 형식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나, 월령체(月令體)라는 점이 이색적이다. 남녀의 이별을 제재로 하여, 계절의 변화에 따라 새로워지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애절하게 노래하고 있다. 전체에 일관되게 흐르는 내용은 축도(祝禱)와 사랑이지만, 12개월의 특성에 맞추어 송축과 찬양, 떠나버린 임에 대한 원망과 한스러움, 그리움 등을 표현하고 있어서 한 여인의 슬픈 마음을 체험케 하고 있다. 전체를 일관하고 있는 것은 송도와 연모이지만, 이 노래에는 송축과 찬양이 있는가 하면 원망과 한이 있고, 고독의 몸부림이 있는가 하면 애절한 상사가 있고, 체념과 자조가 있는가 하면 해행(함께 감)에 의 간절한 기원이 있어 가히 사랑의 일대 파노라마요, 여인 애사의 축도를 보는 듯한 감이 있다.

우리 문학 최초의 월령체인 이 노래는 분연체 형식과 후렴구 사용 등 형태적인 면에서 속요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여 준다. 이 노래는 일 년 열두 달에 맞춰 한 여인의 정감을 노래하고 있는 연가풍(戀歌風)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서사(1연)는 공적인 임(임금)에 대한 송도(頌禱)의 성격이 짙어 이 노래가 궁중에서 불러졌던 의식가(儀式歌)였음을 보여 준다.

이런 형식의 노래로는 "동동" 외에 "관등가(觀燈歌)"와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가 있고, 민요에 "청상요(靑孀謠)"가 있다. 또, 조선 성종 때의 문인 성현(成俔)이 지은 "전가사십이수(田家詞十二首)"와 같은 한시도 있다. 달거리의 특징은 농경 생활이 반영되어 있으며, 세시기(歲時記)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전 13연으로 이별한 임을 그리워하는 내용인데, 제1연만은 임을 송도(頌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노래는 달이 바뀔에 따라 연으로 구분되고, 한 연이 끝날 때마다 여음이 나타난다. 서정적 자아는 여성이며, 임은 남성이다.

각 연별로 나누어 정리해 보기로 한다.

1연 : 임에 대한 송도(頌禱)를 내용으로 하는 이 노래의 서사(序詞)로서, 이 노래가 궁중에서 불러졌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의식가(儀式歌)의 절차를 갖추기 위해 후대에 덧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등장하는 '임'은 개인적 정서와 관계된 '임'으로 볼 수 있지만, '임금'과 같은, 공적인 존재로서의 '임'이라는 의미를 짙게 풍긴다. 이는 일 년 열두 달에 맞추어 한 여인의 정감을 노래하고 있는 연가풍(戀歌風)의 나머지 연에 등장하는 '임'과 구별되는 점이다.

2연 : 달거리의 정월령으로 생의 고독과 임에의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정월과 넷물이 일다가 녹으려 한다는 표현은 자신과 임과의 관계와 연결시켜, 중의적인 의미를 지닌 우의적(寓意的)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3연 : 2월 연등절(燃燈節)에 높이 켜 놓은 등불에서 서정적 자아는 만인이 우려볼 만한 임의 모습을 발견한다.

4연 : 꽃 피는 봄을 배경으로 하는 삼월령에서는, 늦봄에 핀 진달래꽃을 통해 아름다운 임의 모습을 찾고 있다.

5연 : 계절을 잊지 않고 찾아오는 꾀꼬리와 자신을 찾지 않는 녹사 임을 대조시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키면서, 임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친 서정적 자아의 임에 대한 원망과 한탄을 표현하고 있다.

6연 : 5월 5일 수릿날(단오) 아침에 장수를 기원하며 약을 드는 풍습을 통해, 소중한 존재로서의 임을 나타내고 있다.

7연 : 6월 보름,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 유두(流頭) 풍습을 배경으로, 임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가련한 처지를, 액땀을 위해 '벼랑에 버린 빗'에 비유하여 한탄하고 있다.

8연 : 7월 보름 온갖 음식과 과일을 차려 놓고 기원을 올리는 백중날, 임과 함께 지내고 싶다는 서정적 자아의 간절한 소망을 빌고 있다.

9연 : 8월 보름 한가위는 일 년 중 가장 즐거운 명절이지만, 임 없이 홀로 지내야 하는 서정적 자아의 자신의 고독과 그리움을 더욱 깊게 확인할 수밖에 없다.

10연 : 9월 황화전(黃花煎)을 해 먹는 중양절(重陽節) 풍습을 배경으로, 서정적 임이 부재(不在)한 상태의 적막한 초가집에서 느끼는 자아의 고독과 한(恨)을 표현하고 있다.

11연 : 임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가련한 모습을 '보리수 나무'에 비유하면서 체념과 애상이 한데 엉긴 애련(哀戀)을 노래하고 있다.

12연 : 임에 대한 그리움에서 오는 서정적 자아의 괴로움을 '봉당 자리'와 '홀적삼'에 대비시키면서, 사랑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13연 : 진짓상 위에 놓인 '젓가락'에 서정적 자아 자신을 비유하여, 자신이 사랑하는 임과 현실적으로 맺어질 수 없는 비극적 정황을 노래한 마지막 연이다.

이 노래는 시상이 일관된 흐름을 보여 주지 않을 뿐더러, 각 연마다 나타나는 주제도 통일되어 있지 않아 한 작가의 일관된 정서의 표출이라고 보기 힘들다. 서사와 2,3,5월령은 임에게 순수한 송도(頌禱)이다. 이 때의 '임'은 임금이거나 임금처럼 높이 추앙된 공적인 사람일 수 있다. 그러나 정월, 4월령은 개인적 정서, 즉 구체적인 '나의 고독'이며, '나의 임'에 대한 원망적(願望的) 호소이다. 6,7,8월령은 공적 정서와 개인적 정서의 애한(哀恨)이 함께 융합된 중간적 정감의 노래이다. 따라서 이 노래는 원래 연가적(戀歌的) 민요가 궁중으로 흘러 들어가 궁중 연악(宮中宴樂)으로 쓰이면서 변형되었으리라 추측된다. 형식은 민요풍으로서 시어의 구사가 뛰어나며, 현실적으로 맺어질 수 없는 사랑의 비극성을 내포한 서정시다. '동동'은 '농가월령가' 같은 후대의 월령체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짐작된다.

# [ebs부교재] 정과정

정과정(鄭瓜亭)



## DOWN

前腔 내 님를 그리스와 우니다니  
 中腔 山(산) 접동새 난 이숫 효요일다.  
 後腔 아니시며 거츠르신 돌 아으  
 附葉 殘月曉星(잔월 효성)이 아릅시리이다.  
 大葉 녀시라도 님은 훈터 녀져라 아으  
 附葉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二葉 過(과)도 허물도 千萬(천만) 업소이다.  
 三葉 몰히마리신더  
 四葉 슬웃븐더 아으  
 附葉 니미 나를 호마 니즌시니잇가.  
 五葉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전강) 내, 님을 그리며 울고 지내더니  
 (중강) 산 접동새와 난 (처지가) 비슷합니다  
 (후강) (역모에 가담했다는 나에 대한 참소가) 옳지 않으며 거짓이라는 것을  
 (부엽) 잔월효성(殘月曉星 :지는 달 새벽 별)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엽) 녀기이라도 님을 함께 모시고(지내고) 싶어라.  
 (부엽) (내 죄를) 우기던 이, 그 누구입니까  
 (이엽) (나는) 잘못도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  
 (삼엽) 뭇 사람들의 참소하던 말입니다.  
 (사엽) 슬프구나!  
 (부엽) 님께서 나를 벌써 잊으셨나이까  
 (오엽)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 님이여, 내 사연 들으시고 다시 사랑해 주소서

### ◆ 요점 정리

- 작자 : 정서(鄭敍)
- 연대 : 고려 의종 때
- 갈래 : 단연시(單聯時), 유배시
- 구성 :

1~2행	서사	고독 - 접동새
3~9행	본사	결백 - 잔월효성
10~11행	결사	열망 - 일에 대한 애원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성격 : 충신연주지사(忠臣戀主之詞)로 처량, 섬세, 애절함
- 표현 : 영탄법, 상징법
- 제재 : 임과의 이별
- 주제 : 임금을 그리는 정, 자신의 결백과 연군의 정
- 의의 : 고려 가요 중 작자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작품이고, 유배 문학의 효시이며, 또한, 충신 연주지사(忠臣戀主之詞)로서, 후세에 많이 지어진 연군가(戀君歌)의 대종(大宗)이 된다. 향가의 잔영으로 볼 때, 향가의 하한선(下限線)이 12세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
- 출전 : <악학궤범(樂學軌範)>
- 별칭 : '삼진작(三眞勺)'

◆ 내용 연구

내 : 내가, 나의

님플 : 임을, '임' 은 고려 의종.

그리쉬와 : 그리워하와, 그리워하여.

우니다니: (늘) 울며 지내더니.

접동새 : 접동새와, '접동새'는 '소쩍새, 자규,  
귀촉도(歸蜀途), 불여귀' 등으로도 불린다.

난 : 나는, '나'는 지은이 정서(鄭敼).

이슷흐요이다 : 비슷합니다.

아니시며 : (나를 모함한 말이 사실이) 아니며.

거츰르신 : (나를 모함한 말이) 거짓인, 허황한, 사실이 아닌.

돌 : 줄을, 것을.

殘月曉星(잔월 효성) : 지새는 달과 새벽별(金星)로  
자신의 억울함을 아는 달로 나타남

아으 : 아아!

아릅시리이다 : 아시리이다. 아실 것입니다.

넉시라도 : 녀이라도, 혼이라도.

님은 : 임은, 임과는.

훈터 : 함께, 한 곳에.

녀저라 : 가고 싶어라, 지내고 싶어라.  
 벼기더시니 : 우기시던 이가, 또는 고집하는 사람이  
 뉘러시니잇가 : 누구이시더니까? 누구시었습니까?  
 過(과)도 : 과실도, 잘못도.  
 허물도 : 죄도.  
 千萬(천만): 전혀, 조금도, 결코  
 업소이다 : 없습니다.  
 못히마리신더 : 못 사람의 참언(讒言)이시도다.(양주동)  
     멀쩡한 말씀이시었습니다(박병채) 등  
     여러 가지 이설이 있음.  
 슬웃븐더: 사라지고 싶도다, 죽고 싶어라, 슬프구나  
     사되고 싶구나.  
 니미 : 임이.  
 나 : 나를.  
 호마 : 이미, 벌써.  
 니즈시니잇가 : 잊으셨습니까?  
 아소 : 마십시오.(금지의 뜻을 지닌 감탄사)  
 넘하 : 임이시여.  
 도람 : (마음을) 돌려.  
 드르샤: 들으시어.  
 괴오쇼셔: 사랑하옵소서.

● 내 님을 그리사와 ~ 난 이슷하요이다.

'내가 임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요, 또 순편하기는 하나, '나의 임을'로 풀이하는 견해도 있다. 임을 그리워 하며 울고 지내는 서러운 모습을 두견새와 같다고 여기는 작자의 심정을 엿볼 수 있다.

● (산) 접동새 난 이슷하요이다.

나는 산에서 우는 접동새(두견새)와 비슷합니다. 여기서 '접동새'는 한(恨)과 고독의 이미지로 표상되고 있다. 김소월(金素月)의 시 '접동새'와 맥락이 통한다. 여기서 '접동새'와 자신의 처지가 비슷하다고 말을 하고 있다. 접동새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恨(한)을 상징하는 새이다. 그래서 접동새와 같다고 자신을 말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접동새는 '자연의 풍경이나 예술 작품 따위에 자신의 감정이나 정신을 불어넣거나, 대상으로부터 느낌을 직접 받아들여 대상과 자기가 서로 통한다고 느끼는 일'의 '감정이입(感情移入)'의 대상이기도 하다.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감정이입이란 자신의 감정을 대상 속에 이입시켜 마치 대상이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 때 시적 화자의 정서나 사상을 나타내 주는 사물·정황·사건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윤동주'의 '벌레는 밤'에서 "땀은,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라는 시구가 있는데 시적 화자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벌레'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작품에서도 '접동새'는 시적 화자의 심정을 대신한다는 의미에서 '접동새'에 시적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殘月曉星(잔월 효성)이 아시리이다.

저기 보이는 저 지새는 달과 새벽별은 나의 결백함을 알 것입니다. 자신의 무고함과 결백을 호소하고 있는 대목으로서, '잔월 효성'은 가장 정당하고 공정한 심판자의 표상으로 쓰이고 있다.

- 녀시라도 남은 한데 녀저라 아으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혼만이라도 임과 함께 가고 싶다는 의미로 충정이 잘 드러나 있다. 이 대목은 또 다른 고려 가요인 '만전춘 별사(滿殿春 別詞)'와 유사한 내용이다.

- 베키더시니 뉘러시니잇가

(임금님의 뜻을) 어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우기던 사람, 곧 나를 귀양 보내게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나를 헐뜯고 우기는 사람에 대한 원망의 어조로 노래하고 있다. ['베키다'의 해석 : 일반적으로 '고집하다', '헐뜯다'의 뜻으로 해석하지만 '거짓말하다'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헐뜯다'의 의미로 해석할 경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임에 대한 충성을 노래하는 연군가로 볼 수 있지만, '거짓말하다'로 보면 임금의 거짓 약속을 원망하는 노래로 보아야 한다.]

- 말히마리신더

'못 사람들 보고 참소하지 말아 달라'는 청으로 볼 수도 있고, '말씀이 마르다, 즉 할 말이 없다'는 평서문의 의미로 볼 수도 있다. [삼인성호(三人成虎) : 근거 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믿게 됨을 이룸]

- 슬웃븐더 아으

사퇴고 싶구나. 슬프구나, 사라지고 싶구나.

- 아소 남하,

아소는 오늘날의 '아서라'라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금지어로서, 원망과 기원의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구절이다.

-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돌려 들으시어 사랑하소서. 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기원하는 구절로서, 임금이 돌려 들으시어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미이다.

- 내 : 내가. 나의

- 님을 : 임을. '임' 은 고려 의종.

- 그리 와 : 그리워하와. 그리워하여.

- 우니다니: (늘) 울며 지내더니.

- 접동새 : 접동새와. '접동새'는 '소쩍새, 자규, 귀촉도(歸蜀途), 불여귀' 등으로도 불린다.

- 이숫 요이다 : 비슷합니다.

- 아니시며 : (나를 모함한 말이 사실이) 아니며.

- 거츠르신 : (나를 모함한 말이) 거짓인. 허황한. 사실이 아닌.

- : 줄을. 것을.

- 殘月曉星(잔월 효성) : 지새는 달과 새벽별(金星)로 자신의 억울함을 아는 달로 나타남

- 아으 : 아아!

- 아 시리이다 : 아시리이다. 아실 것입니다.

- 녀시라도 : 녀이라도. 혼이라도.

- 남은 : 임은. 임과는.

- : 함께. 한 곳에.

- 녀저라 : 가고 싶어라. 지내고 싶어라.

- 베키더시니 : 우기시던 이가. 또는 고집하는 사람이

- 뉘러시니잇가 : 누구이시더니까? 누구시였습니까?

- 過(과)도 : 과실도. 잘못도.

- 허물도 : 죄도.

- 千萬(천만): 전혀. 조금도. 결코

- 업소이다 : 없습니다.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햇마리신더** : 못 사람의 참언(讒言)이시도다.(양주동) 멀쩡한 말씀이시였습니다 (박병채) 등 여러 가지 이설이 있음.
- **웃븐더**: 사라지고 싶도다. 죽고 싶어라. 슬프구나, 사되고 싶구나.
- **니미** : 임이.
- **나** : 나를.
- **마** : 이미. 벌써.
- **니 시니잇가** : 잊으셨습니까?
- **아소** : 마십시오.(금지의 뜻을 지닌 감탄사)
- **넘하** : 임이시여.
- **도람** : (마음을) 돌려.
- **드르샤**: 들으시어.
- **괴오쇼셔**: 사랑하옵소서.

● **또 다른 해석들**

내가 임을 그리워하여 울고 지내더니  
 산두견과 나는 비슷합니다.  
 옳지 않으시다 하고 거칠다 하시더라도  
 진심을 잔월효성이 알으실 것입니다.  
 낮이라도 임을 한 데 모시고 지내고자 하는데  
 항거하시는 이 누십니까?  
 과도 허물도 천만 없습니다.  
 못사람들이여 참소 말으소서 혹은 할 말이 없습니다  
 슬프구나  
 임께서 벌써 나를 잊으셨습니까?  
 마십시오, 넘이시여, 마음을 돌리시어 다시 사랑해 주십시오

내가 임을 그리워하여 늘 울고 지내더니(늘 울고 있노라니),  
 저 산접동새와 나는 비슷합니다.  
 참소의 말이 (참이) 아니며 거짓인 줄을 지새는 달과 새벽별이 아실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라도 임과는 한 곳에 가고 싶습니다. 아아,  
 (임의 뜻을) 여기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저 자신이었습니까? 아니면 간신들이  
 었습니까?).  
 (저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것은) 못 사람의 참소하는 말입니다.  
 사라지고 싶구나. 아아  
 임이 저를 (다시 부르시겠다더니) 벌써 잊으셨습니까?  
 마소서, 임이시여, 돌려 들으시어 다시 사랑하소서.

♣ **이해와 감상**

우리말로 전하는 고려 가요 중 작자가 확실한 유일한 노래로 주목된다. '고려사' 악지에 따르면 작자는 인종과 동서간으로서 오랫동안 왕의 총애를 받아왔는데, 의종이 즉위한 뒤 참소를 받아 고향인 동래로 유배되었다. 이때 의종은 머지 않아 다시 소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오래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다. 이에 거문고를 잡고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 선처를 청하기 위해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작자가 귀양에서 풀려난 것은 무신란이 일어나 명종이 즉위한 해였다. 작자의 호를 따서 후세 사람들이 이 노래를 '정과정'이라 하였다. 이 노래는 충신 연주지사로 사람들에게 널리 애송되었으며, 궁중에서도 이를 전악(典樂)으로 보존하여 모두 익히도록 할 정도로 귀히 여긴 고려 가요이다. 고려 가요 중 향가의 잔영으로서 대표적인 작품인데, 작자가 유배 상황에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노래는 향찰로 표기되어 전해지는 '향가'는 아니지만 형식면에서 10구체 향가의 전통을 잇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0구체 향가와 달리 감탄사의 위치가 바뀌고, 내용상의 격조가 떨어지는 등 향가 해체기의 잔영을 발견할 수 있다.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ebs부교재] 만전춘별사

## 만전춘(滿殿春)

어름 우희 덧님 자리 보와  
님과 나와 어러주글만덩  
어름 우희 덧님 자리 보와  
님과 나와 어러주글만덩  
정둔 오늘밤 더디 새오시라 더디 새오시라

경경(耿耿) 고 침상(孤枕上)에 어느 죽미 오리오  
서창(西窓)을 여러 하니  
도화(桃花)ㅣ 발(發)호두다  
도화는 시름업서 소춘풍(笑春風)호는다 소춘풍호는다

녁시라도 님을 혼더  
녀닛경(景) 너기더니  
녁시라도 님을 혼더  
녀닛경(景) 너기더니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뉘러시니잇가

올하 올하  
아련 비올하  
여홀란 어디 두고  
소해 자라 올다  
소곳 얼면  
여홀도 도호니 여홀도 도호니

남산애 자리 보와  
옥산을 베틀어 누어  
금수산 니블 안해  
사향 각시를 아나 누어  
남산애 자리 보와  
옥산을 베틀어 누어  
금수산 니블 안해  
사향 각시를 아나누어  
약(藥)든 가슴을 맛초읍사이다 맛초읍사이다

아소 님하 원대평생(遠代平生)애 여힐솔 모락읍새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요점 정리**

- 작가 : 미상
- 연대 : 고려 시대
- 갈래 : 고려 속요
- 성격 : 연가, 남녀상열지사, 향락적, 퇴폐적
- 형식 : 5언으로 이루어진 분절체로 결사를 포함하여 전 6언으로 보기도 함
- 구성 :

1언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정열 / 임과의 짧은 밤에 대한 아쉬움
2언	임 생각에 밤을 지새우는 애처로움 - 전전반측
3언	사랑을 배신한 임에 대한 원망
4언	무절제한 사랑을 하는 임에 대한 풍자
5언	임에 대한 욕망과 상상
6언	임과의 이별 없는 영원한 만남을 염원

연	내용	화자의 정서
1언	임과의 짧은 밤에 대한 아쉬움.	사랑과 정열
2언	임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	↓
3언	임에 대한 원망	고독과 애처로움
4언	임의 방탕한 생활을 풍자함. ▶	↓
5언	임에 대한 욕망과 상상(시적 화자가 남성)	무절제한 사랑에 대한 냉소
6언	임과 평생 함께할 것을 소망함. ▶ (결사)	영원한 만남의 염원

- 제재 : 남녀간의 사랑 또는 애정
- 주제 :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소망, 임과의 영원한 사랑 기원(임과의 사랑을 직설적으로 드러냄)
- 의의 : 2언과 5언이 시조 형태에 근접하고 있어, 시조의 기원을 찾는 자료로서 주목받고 있다.
- 특징 : 남녀간의 애정을 가식 없이 진솔하고도 적나라 하게 표현했고, 비유와 상징, 반어와 역설, 감각적인 언어로 감정의 표현이 진솔하여 문학성이 높은 편이고, 민요와 시조, 경기체가 등 여러 형식의 영향이 나타남.(각 연은 형식상으로 불균형을 보이고 있고, 시어도 이질적이며 의미론적으로도 통일성을 결여하고 있어서, 이 작품은 여러 이질적이고 독립적인 당대의 유행 노래를 궁중의 속악 가사로 합성, 편사함으로써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 구성 :

어롬우회 댓넙자리 보아 넘과나와 어러죽을 만덜 어롬우회 댓넙자리 보아 넘과나와 어러죽을 만덜 情둔 오늬밤 더디 새오시라 더디 새오시라	얼음 위에 댓넙 자리를 보아(퍼서) 임과 나와 얼어죽을망정 얼음 위에 댓넙 자리를 보아(퍼서) 임과 나와 얼어죽을망정 정을 준 오늘 밤 더디 새어라(새소서), 더디 새어라. - 임과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은 소망
耿耿孤枕上에 어느 주미 오리오 西窓을 여러흔니 桃花   發호두다 桃花는 시를업서 笑春風호는다 笑春風호는다	잊히지 않고 늘 염려스러운(근심에 싸인) 외로운 베갯머리에 어찌 잠이 오리오. 서쪽 창문을 여니(열어젖히니) 복숭아꽃(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탄식하는 화자의 처지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화자는 복숭아꽃과 상황을 대조하여 인식하고 있음)이 피어나는구나 복숭아꽃이 걱정 없이 봄바람에 웃는구나, 봄바람에 웃는구나.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p>넋시라도 남을 혼디      녀넋景 너기다니      넋시라도 남을 혼디      녀넋景 너기다니      벉기머시니 뉘러시니잇가      뉘러시니잇가</p>	<p>- <b>임이 떠난 후의 외로움</b>          넋이라도 임과 한 곳에          남의 경황(흥미있는 상황)으로만          여겼더니[넋이라도 임과 함께 지          내는 모습 그리더니 / 넋이라도          임과 한 곳에 가는 정경을 생각          하였더니]          넋이라도 임과 한 곳에          남의 경황으로만 여겼더니[넋이          라도 임과 함께 지내는 모습 그          리더니]          우기던(어기던) 사람이 누구였습          니까? 누구였습니까?</p> <p>- <b>임에 대한 원망</b></p>
<p>올하 올하 아련 비올하      여홀란 어디 두고      소해 자라 온다      소곶 얼면 여홀도 뉘흔니      여홀도 뉘흔니</p>	<p>오리야 오리야          어린(연약한) 비오리(쇠오리와 비          슷하되 좀 크고 날개는 자줏빛          많아 찬란함, 암수가 함께 놀)야          여울일랑 어디 두고          소(늪 / 임이 사랑하게 될 지도          모를 다른 여인을 상징)에 자리          오는가?[이 여자 저 여자에게 마          음 뺏겨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임          에 대한 풍자]          소(늪) 곧 얼면          여울(화자를 비유)도 좋습니다.          여울도 좋습니다.[다른 여인과의          실증이 나거나 식으면 다시 여인          (화자)에게로 돌아오겠다는 뜻.          화자인 여인의 목소리가 아닌 임          의 목소리가 드러남]</p> <p>오리야, 오리야, 어리석은 비오리야,          여울은 어디 두고 소에 자느냐?          소가 곧 얼면 여울도 좋으니 여          울도 좋으니</p> <p>- <b>임의 방탕한 생활 풍자</b></p>
<p>南山에 자리보아 玉山을 버여 누어      錦繡山 니불안해 麝香각시를 아나      南山에 자리보아 玉山을 버여 누어      금수산 니불안해 麝香각시를 아나      藥든 가슴을 맞초옵사이다      맞초옵사이다</p>	<p>남산에 자리 보아 옥산을 베고 누워          금수산 이불 안에 사향 각시(아          름다운 여인)를 안고 누워[아름          다운 여인인 임과 하룻밤 보내고          싶다는 남성의 진술로 해석할 수          있음 / 그래서 5연이 나머지 연          과 다른 점]          남산에 자리 보아 옥산을 베고          누워          금수산 이불 안에 사향 각시(아          름다운 여인)를 안고 누워          약(사향이) 든 가슴을 맞춥시다.          맞춥시다.          맞춥시다.</p> <p>- <b>임에 대한 욕망과 상상</b></p>
<p>아소 님하 遠代平生애      여힐솔 모릅세</p>	<p>알아 주소서, 임이시여, 원대평생(영          원히 / 일생 동안으로 현세를 뛰          어넘는 저승까지 포함)에 이별할          줄 모르고 지냅시다.</p> <p>- <b>영원한 사랑에 대한 소망 / 이별          없는 세상을 동경</b></p>

얼음 위에 댕넝 자리 퍼서 임과 내가 얼어 죽을망정

얼음 위에 댕넝 자리 퍼서 임과 내가 얼어 죽을망정

정돈 오늘 밤 더디 새소서, 더디 새소서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근심 어린 외로운 잠자리에 어찌 잠이 오리오  
 서쪽 창문을 열어젖히니 복숭아 꽃이 피어나는구나  
 복숭아꽃이 근심 없이 봄바람에 웃는구나  
 봄바람에 웃는구나  
 낮이라도 임과 한 곳에 가는 정경을 생각하였더니  
 낮이라도 임과 한 곳에 가는 정경을 생각하였더니  
 여기던 이가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오리아 오리아 연약한 비오리아  
 여울은 어디 두고 소(눈)에 자리 오느냐  
 소마저 일면 여울도 좋습니다. 여울도 좋습니다.  
 남산에 잠자리를 보아 옥산을 베고 누워  
 금수산 이불 안에서 사향 각시를 안고 누워  
 남산에 잠자리를 보아 옥산을 베고 누워  
 금수산 이불 안에서 사향 각시를 안고 누워  
 사향이 든(향기로운) 가슴을 맞추십시오. 맞추십시오.  
 아소서, 임이시여  
 영원히 이별할 줄 모르고 지냅시다.

출전 : 약장가사

❖ 내용 연구

얼음 위에 맺녘(맺임으로 죽음을 뜻하고 좋지 않은 잠자리) 자리를 보아  
 임과 나와 얼어죽을망정  
 얼음 위에 맺녘 자리를 보아  
 임과 나와 얼어죽을망정  
 정을 준(임과 정을 맺은, 사랑을 나눈) 오늘 밤 더디 새어라, 더디 새어라.[임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도 행복하여 제발 더디 가기를 바라는 시적 화자의  
 마음이 담긴 말로 사랑하는 임과 함께 있다면 동사해도 좋다는 여인의 단호한 의  
 지가 담겨 있다./ 얼어 죽어도 좋으니 겨울밤이 계속 되기를 바라는 비현실적인  
 상황 - 임을 사랑하는 화자의 뜨거운 마음과 소망] - 임과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  
 은 소망 / 임과의 짧은 밤에 대한 아쉬움  
 잊히지 않고 늘 염려스러운[경경 : 耿耿 : 잊히지 않고 늘 염려스러운, 근심에 싸  
 인] 외로운 베갯머리에 어찌 잠이 오리오.[화자의 외로움으로 근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함 - 전전반측]  
 (외로운 마음에) 서쪽 창문을 여니(열어 젖히니)  
 복숭아꽃[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존재로 화자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매체]  
 이 피어나는구나  
 복숭아꽃이 걱정 없이 봄바람에 웃는구나[화자의 외로운 심경과는 상관없이 봄바  
 람을 즐기는 도화는 화자의 상대적 외로움을 심화함], 봄바람에 웃는구나.(반복법  
 으로 임을 그리워하는 시적 화자의 심정을 읽을 수 있다.) - 임이 떠난 후의 외로  
 움 / 임을 생각하며 잠 못 이루는 밤  
 낮이라도 임과 한 곳에 [또는 낮이라도 임과 함께 지내는 모습 그리더니][정과정  
 곡의 구절 '녁시라도 한되 녀쳐라 아오'와 유사함]  
 남의 경황(흥미있는 상황, 남의 일 또는, 가는 광경으로 '경'은 '모습'이나 '경치'의  
 뜻, '녀넛 경'을 지내겠다고)으로만 여겼더니  
 낮이라도 임과 한 곳에 [또는 낮이라도 임과 함께 지내는 모습 그리더니]  
 남의 경황으로만 여겼더니

우기던(우리의 사랑을 어기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습니까?[임에 대한 서운함이 담겨 있음] - 임에 대한 원망

오리[임]야 오리아

어린(혹은 연약한) 비오리(쇠오리와 비슷하되 좀 크고 날개는 자줏빛 많아 찬란함, 암수가 함께 늙)야

여울[화자 자신]일랑 어디 두고

소(연못, 늪, 연적)에 자리 오는가?[이 여자 저 여자에 마음을 빼앗겨 방탕한 생활을 일삼고 있는 임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소(연못, 늪) 곧 얼면

여울[강이나 바닥이 얇거나 폭이 좁아 물살이 몹시 세차게 흐르는 곳]도 좋습니다. 여울도 좋습니다.[다른 여인과의 만남이 싫증이 나거나 식으면 다시 여인(화자)에게로 돌아오겠다는 뜻. 화자인 여인의 목소리가 아닌 임의 목소리가 드러남]

- 임의 방탕한 생활 풍자

남산[따뜻한 온돌]에 자리 보아[자리를 펴] 옥산[옥베개]을 베고 누워

금수산[비단] 이불 안에 사향 각시(사향이 든 주머니 / 아름다운 여인)를 안고 누워[아름다운 여인인 임과 하룻밤 보내고 싶다는 남성의 진술로 해석할 수 있음 / 이 점이 다른 연과 구별됨. 시적 화자가 남성이라는 것]

남산에 자리 보아 옥산을 베고 누워

금수산[금수로 수를 놓은 비단, 또는 치장이 아름답고 화려한 옷이나 직물] 이불 안에 사향 각시(아름다운 여인을 말하지만 사향은 원래 사향노루의 사향샘을 건조하여 얻는 향료. 어두운 갈색 가루로 향기가 매우 강하다. 강심제, 각성제 따위에 약재로 쓴다)를 안고 누워

약(사향이) 든 가슴을 맞춥시다. 맞춥시다.[상상으로 임과 잠자리를 소망함]

맞춥시다. - 임에 대한 욕망과 상상

알아 주소서, 임이시여, 원대평생(영원히 / 일생 동안으로 현세를 뛰어넘은 저승까지 포함)에 이별할 줄 모르고 지냅시다.[사랑하는 임과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는 과장적 표현임] - 영원한 사랑에 대한 소망 / 임과 평생 함께할 것을 소망

####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고려 시대 향간속곡(巷間俗曲)의 하나로 유녀(遊女) 생활의 일면을 노래한 것으로 그 내용이 직설적이고 속된 표현이 많으나 오히려 이런 점이 솔직한 자기 소망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문학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대개 이런 작품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남녀상열지사라고 지탄을 받으면서 우리의 문학적 기록에서 많이 사라졌다고 추측이 되지만, 인간의 진솔한 감정을 노래한 점 등에서 문학성을 높이 살 만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전 5연이며 내용은 유녀(遊女)의 애정을 노래한 것이다. 정사(情事)를 노래한 점에서 '쌍화점'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이 노래는 제1연에서 짙은 에로티시즘을 풍기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추해 보이지 않는 것은 2연에 나타난 것처럼 넘은 이미 떠났고, 얼음 위에서라도 넘과 함께 있고 싶은 여인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제2연에서는 기약도 없이 떠나간 임을 그리며 외로운 베갯머리에 누워 쓸쓸한 마음에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가련한 신세를 무심코 만발하는 복숭아꽃에 비기어 한탄하였다. 곁행에 복숭아꽃이 봄바람에 웃는다는 표현은 문학적으로 매우 뛰어나며 마치 넘에게 버림받은 자신을 비웃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제3연에서는 만날 수 없는 임을 닮이라도 만나 임과 함께 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사랑이 지나쳐 원망으로 번져 가고 있다. 4,5연은 다시 넘과의 해후를 그리며 평생에 번치 않는 사랑을 다짐하고 있어 속된 내용 속에서도 한국 여인의 끈질긴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한문으로 된 가사 '만전춘사'와 구별하기 위해 '만전춘'을 '만전춘별사'라고 부르기도 했다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